

태국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태국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2020. 10.

국방기술품질원

이 면은 공백임

이 면은 공백임

Contents

제1장 요약	1
제2장 시장 / 환경 분석	5
제1절 일반현황	
1. 개요	7
2. 정치·경제환경	10
3. 안보환경	14
4. 한국과의 관계	16
5. 전력구조 및 군사조직	17
제2절 획득정책 및 제도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	19
2. 조달 및 의사결정 절차	21
3. 예산편성절차	23
제3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1. 주요 무기체계 획득 동향	26
2. 예산 지출 전망	33
3. 방위산업 역량 및 육성정책	36
4. 수출 장애요인	44
5. 수출 유망품목	45



제3장 시장 진출 전략

57

제1절 시장 환경 분석(SWOT 분석)

- | | |
|----------------------|----|
| 1. 분석 개요 | 59 |
| 2. 강점(Strength) | 60 |
| 3. 약점(Weaknesses) | 61 |
| 4. 기회(Opportunities) | 62 |
| 5. 위협(Threats) | 63 |

제2절 시장진출 전략

- | | |
|--------------------|----|
| 1. SO 전략(강점-기회 전략) | 65 |
| 2. ST 전략(강점-위협 전략) | 67 |
| 3. WO 전략(약점-기회 전략) | 67 |
| 4. WT 전략(약점-위협 전략) | 69 |
| 5. 태국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 69 |

제4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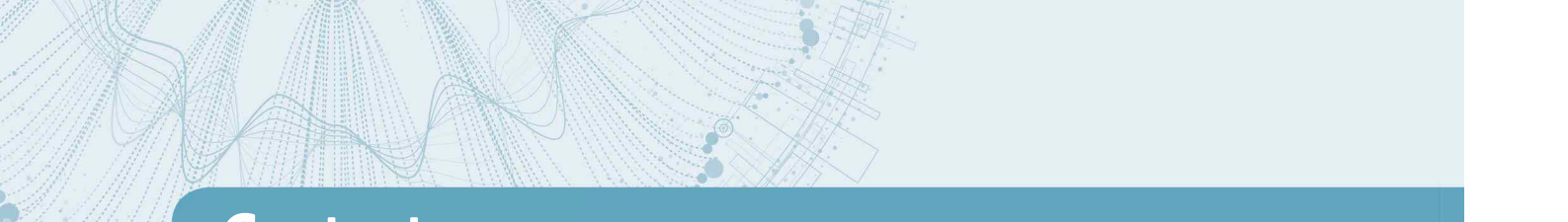
제1절 정책제안

- | | |
|------------------------|----|
| 1. 정부 협력차원의 정책 | 75 |
| 2. 한국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방안 | 76 |
| 3. 한-태 방산협력 프로그램 활용 방안 | 78 |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80

DTaQ



Contents

부 록	83
1. 향후 획득 계획	
2. 주요 현지 방산 기업	
3. 군종별 노후화 장비	
참고문헌	104



표목차

[표 2-1] 태국 일반 현황	7
[표 2-2] 태국 군사력	18
[표 2-3] 국방조달 관련 주요 조직 및 의사결정 역할	21
[표 2-4] 태국의 예산편성 절차	24
[표 2-5] 2017~2024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33
[표 2-6] 군종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34
[표 2-7]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35
[표 2-8] 핵심전략❷ 국가경쟁력강화 세부 개발분야	42
[표 2-9] 태국 2015~2019년 체계별 수입 현황	46
[표 2-10] 태국 운용 및 개발 중인 무인기의 분류	47
[표 2-11] 태국 2020~2029년 체계별 획득 계획	48
[표 2-12] 태국 '20~'29년 통신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50
[표 2-13] 태국 '20~'29년 지휘통제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 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51
[표 2-14] 태국 '20~'29년 EO/IR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52
[표 2-15] 태국 '20~'29년 시뮬레이션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 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53
[표 2-16] 태국 '20~'29년 무인체계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 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53
[표 3-1] 예산감축에 따른 지연 예상 획득 사업	63
[표 4-1] 세계 MRO 업종 현황	66
[표 4-2] 구성품/부품 중정비 분류	66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1] 태국 행정구역	9
[그림 2-2] 태국 국방부 조직도 및 지휘 계통	17
[그림 2-3] 국방위원회 조직 및 위원의 구성	20
[그림 2-4] 태국 국방 조달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22
[그림 2-5] 군종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34
[그림 2-6] 지출 분야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35
[그림 2-7] 태국 국가발전 계획 수립 과정	41
[그림 3-1] 태국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58
[그림 4-1] 한-태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방안	78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1 장

요 약

1

제

장

요 약

제 1 절 요 약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요약

본 보고서는 태국 방위산업 시장에 관한 동향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태국 방산시장의 특성 및 정책 방향, 국방지출, 획득 예정 사업 등을 바탕으로 태국 방산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의 수행 임무에 따라 국내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진출 전략, 정책 제언에 초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최근 5년간의 태국 무기 수입 거래 실적 추이와 향후 10년간 획득계획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진입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도출하였으며, 태국의 방산 시장 특성을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 관점에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였다.

태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친군사 세력의 집권으로 국방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따라 국방비 감축이라는 위협이 상존하며,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단순 해외 구매보다는 기술협력, 공동개발/생산 등의 협력 소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화 정책을 통한 노후화 장비 분해수리 및 성능개량사업 참여 확대와 수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전문조달 기구 운영 관리 노하우 패키지 수출, 지역 방산 수출전문가육성 및 전문 중개업체(Agent) 운영, 태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체계(partnering)을 통한 시장진입 등과 같은 태국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도출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과 시사점을 제사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본 보고서는 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소기업에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향을 고민해보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 시 내실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2장

시장/환경 분석

제 2 장

시장 / 환경 분석

제 1 절 일반현황

제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일반현황¹⁾²⁾³⁾

1. 개요



[표 2-1] 태국 일반 현황

구분	내용
국명/화폐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 바트(Baht)
면적	513,120km ² (한반도의 2.3배)
수도	방콕(Bangkok, 인구 약 800만 명)
인구	6,918만 명(2018년 IMF 전망 기준)
언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교	불교(94.6%), 이슬람교(4.6%), 기독교 및 천주교(0.7%), 기타(0.1%)
인종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국왕: 라마 10세(Maha Vajiralongkorn) 2016년 12월 1일 즉위 총리: 프라윗 찰오차(Prayuth Chan-o-cha), 제29대 총리(2014.8.취임, 2019.6.재취임)
의회제도	양원제 (상원 250명, 하원 500명)
국내총생산	4,872억 USD(26위) / GDP 성장률 : 4.1% (2018년 기준 IMF)
해외교역	교역 : 4,950억 USD (수출 : 2,501억 USD, 수입 : 2,449억 USD)
주요자원	천연고무, 타피오카,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천연가스

1) 2019 태국 개황, 외교부(2019.11.)

2) KOTRA 해외시장 뉴스 국가·지역 정보-태국

3)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5.4.)

가. 국가 특징

- **[민족성]** 태국은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직접 정치에 나서지 않으나 국민의 국왕과 왕실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이 높으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강하나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 **[지정학적 위치]**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북서쪽으로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지역의 분쟁 위험을 안고 있다.
- **[종교]** 태국인 대부분은 불교신자이며 왕실과 함께 불교는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불교 외의 교세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으로 남부 3개 주의 이슬람 분리운동 관련 분쟁은 이러한 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나. 정부 구성

- **[국가원수: 국왕]** 불교와 종교의 수호자(헌법7조)이며 군 최고통수권자(헌법8조)이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하여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며 내각 및 18명 이내의 추밀원 위원, 각급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 추밀원: 1875년 설립된 국왕의 자문기구로 왕위계승 및 왕족법 등 왕실관련법규에 대한 견해를 국왕에게 제시할 수 있다.
- **[행정부: 내각책임제]** 내각은 총리 및 35명 이하의 각료로 국왕의 임명에 따라 구성되나, 현 내각의 경우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총 33인의 과도내각으로 출범하였다. 브라웃 총리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부총리 5인, 장관 20인, 부장관 13인으로 구성된 내각이 2019년 7월 10일 국왕의 승인을 받아 출범하였다.
- **[입법부: 의회]** 태국은 양원제를 택하는 국가로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2017년 개정헌법의 과도기 조항에 따라 총선 후 5년간 250명으로 구성되나 그 이후에는 200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상원은 총리 선출 투표권, 하원 발의 법률안 및 상정안 심의, 각종 감찰기구 위원 임명권, 비리 조사 요구권을 가진다. 500명의 하원 중 350명은 직선제에 따라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나머지 150명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선출된다. 하원의 주요 권한으로는 대정부 불신임권, 주요 법률안 발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이 있다.

- ❖ [사법부] 태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도로 1심 제판소, 2심 항소재판소, 3심 대법원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다. 지방행정

- ❖ 태국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Bangkok), 77개 주(Changwat), 1개 직할시(Pattaya), 795개 군(Amper), 7,255개 면(Tambon)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Bangkok) 및 직할시(Pattaya)는 특수자치단체로 나머지 행정구역은 일반자치단체로 구분한다.
- ❖ 전국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브라운 총리 집권 이후 관련법규를 일시 무효화하고 총리가 직접 임명하고 있다.



[그림 2-1] 태국 행정구역4)

4) 자료출처: CIA, Map of CIA

2. 정치·경제환경

- **[1932년 입헌혁명]** 1932년 유학파 청년층 장교들과 민간인들이 주축을 이뤘던 카나라싸던 (People's Party, 인민당)의 주도 하에 일어난 입헌혁명이 계기가 되어 절대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라마 9세 국왕은 2016년 10월 13일 서거할 때까지 70년 간의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군사 독재 정부에 맞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을 대외적으로 지지하였다.
 - 왕실 프로젝트(Royal project)를 통해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꾀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을 직접 살피는 것으로 전 국민적 DLS 존경을 받았다.
- 현재 태국은 마하 와치랄롱콘 국왕이 2016년 12월 1일 짜끄리 왕조의 10대째 국왕인 라마 10세로 즉위하여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
- 태국 군부는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선언하고 프라윗 육군 사령관이 3개월만에 과도 총리직을 맡았다. 프라윗 총리는 국가개혁위원회(NRC)와 과도의회의인 국가입법회의(NLA)를 중심으로 정치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최초 2015년 10월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스케줄은 거듭 연기되었고 2017년 10월 트럼프 미 대통령 초대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프라윗 총리는 2018년 11월 총선을 발표했다.
- 2019년 3월 24일, 거듭 지연되어온 총선이 실시되었고, 친 탁신계 프어타이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고, 친(親)군사 정권인 팔랑프라차랏당이 최다 득표를 하여 2019년 6월 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프라윗 총리를 새 총리로 선출, 6월 11일 국왕의 재가를 받고 공식 취임하였다.

가. 프라윗 정부의 당면 과제 - '중진국 함정⁵⁾'탈출

-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태국은 가난한 농업기반 국가에서 산업화, 국제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이 임금 수준이 낮은 인접 국가들로 이전되면서 태국은 '중진국 함정'으로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5)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용어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1인당 GDP 4,000~1만 2,000달러)에 도달한 뒤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일컬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태국")

- 태국은 안정된 사업 환경, 국제무역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그리고 도로, 항만, 전력공급, 통신 등과 같은 기초적 사회간접자본 확립 등의 노력을 통해 중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 중진국 함정의 경제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지난 2016년도에 시작된 ‘태국 4.0’으로 선진 제조업 기반 강화와 더불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 역량과 연계된 기술 발전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 향상과 더불어 혁신 및 창의성, 기술 진보를 촉진하여 경제 현대화를 구현하고자 노력중이다.⁶⁾
- 첨단기술 부재, R&D 투자 부진, 숙련 노동자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중진국 함정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태국 4.0’ 정책을 통해 태국 산업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기술의 S-Curve 전략을 도입하여 기존 성장 동력 5개 산업(①차세대 자동차, ②스마트 전제품, ③의료/웰빙관광, ④농업/바이오기술, ⑤미래형 식품)을 중기차원에서 육성하면서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 도약을 위한 5개의 미래산업(⑥로보틱스, ⑦항공/물류, ⑧바이오 연료/바이오화학, ⑨디지털, ⑩의료허브)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 ‘태국 4.0’ 개혁 과제에는 국방 분야의 선진기술 이전과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방위산업 기반의 역량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태국 지도층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2017년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차청사오, 촌부리, 라용주의 13,285km²에 해당하는 지역을 2021년까지 1.5조 바트(4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권역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10대 집중 육성산업을 유치하고 ‘태국 4.0’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제정체를 벗어나려고 노력중이다.

나. 중립적 대외 노선

- 태국은 개방적인 대외정책으로 1826-33년에는 영국 미국과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6) 최근 태국 경제 현황 및 한국-태국 경제협력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9.8.28.)

-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반공 및 친서방 외교노선을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중립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여 실리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 적화 이후 중국, 인도차이나 3국 및 소련, 동구 등과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실리 외교를 추구하여 탈냉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ASEAN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 내 능동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남아 평화자유 중립지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태국의 중립외교를 방증하는 예로 2003년 미국의 제2차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태국 정부는 UN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였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기간 중 침묵을 지키다가 나중에 중립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미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으며 지원 또한 440명의 인도적 임무를 띤 군대만 파병하였다.
- 최근 태국의 대외정책은 동남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단 ASEAN 회원국뿐만 아니라 ASEAN의 범주를 넘어 인도, 중국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지역 협력체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UN, ASEAN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남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다. 국제 경제협력 활동

- 구소련과 동구 붕괴와 함께 NAFTA 등 지역보호주의가 강화되자 태국은 1991년 1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을 제안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AFTA가 공식 출범하였다.⁷⁾
- 또한, 태국은 1997년 형성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의 회원국으로 벵골만 연안을 따라 위치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6개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과 함께 주요 14개 부문의 기술 및 경제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7) AFTA 설립 목적은 역내 관세 최소화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ASEAN 국가 간 무역자유화, ASEAN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개선 및 유치확대,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ASEAN 국가의 능동적 대응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APEC 역내 무역 및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 2015년 12월, 태국을 비롯한 ASEAN 10개국은 ASEAN 경제공동체(AEC)를 공식 출범하여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완전한 통합 등의 목표로 동남아시아 경제 연합에 힘쓰고 있다.

 - ASEAN 10개국 중 늦게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6개국은 2010년부터 역내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0~5%로 낮췄으며,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역내관세를 0~5%로 낮추어 역내 교역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 2014년 8월부터 프라웃 총리는 취임 이래 ASEAN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ASEAN 국가 간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 2019년도에는 ASEAN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로 제34차(2019.6.) 및 제35차(2019.11)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ASEM, APEC,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와의 외교 및 경제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 ❖ 태국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활용하여 서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 2013년부터 EU와 FTA 체결 추진 중 2014년 쿠데타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2017년 12월 EU가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태국과 모든 정치적 관계 복원을 위한 접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 그 외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파트너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페루, 칠레 등이 있다.

 - 다자간 FTA로는 과거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서명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2020년 3월 현재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에 있다.⁸⁾

8)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일본의 주도하에 결성된 다자 간 FTA이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한국과

- 또한 중국 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다른 ASEAN 국가들과 참여 중에 있다.⁹⁾

3. 안보환경

- ❖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주변국과의 유혈 충돌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경 감시 및 보호를 통한 외부 위협의 억제가 주요 안보 임무이다.
- ❖ 19세기 유럽 열강들의 압박 속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대립을 이용하여 식민지화 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이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외국의 간섭을 피하고 국가 안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안보 협력

- ❖ **[미국과의 안보 관계]** 1976년 태국 주둔 미군이 철수한 이후 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유대가 약화되었으나, 1954년 마닐라 협정 및 1962년 Khoman-Rusk 공동성명에 의거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유효하므로 유사 시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또한 역내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2년부터 미-태 해군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Cobra Gold exercises)이 시작된 이래 1986년부터는 태국의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였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으로 확대되었다.
- Cobra Gold exercises 2020은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20년 2월 24일에서 3월 6일까지 열렸으며, 한국도 2010년 2월 해병대 1개 대대 및 LST 1척으로 최초 참가 이후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국은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임. 태국의 경우, 2018년 한해 CPTPP 회원국 11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31%에 해당하는 미화 770억 달러(약 86조 5,000억 원)이며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2019년 초부터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2020년 3월 10일 현재, 태국의 최종 가입 여부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9)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회원국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

- ❖ **[아세안 안보 협력 참여]** ASEAN은 회원국 간 정치·경제·문화·사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보협력을 위해 ARF, ADMM+ 등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으며, 태국-말레이시아 간 합동훈련, 태국-인도네시아 간 해·공군 연합훈련, 태국-싱가포르 간 해·공군 훈련 등 회원국 상호간 쌍무적 군사협력도 시행하고 있다.
- ❖ 한국과도 태국의 한국전 참전 이후 지속되어온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방산 협력을 포함한 상호 군사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 이처럼 태국은 서방 및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방위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방 제조업체가 만든 상당량의 방위 장비도 계속 운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스라엘군과도 첫 합동 사이버 훈련을 개최하였고, 2019년 9월 인도 군과의 연합훈련에도 참가하였다. 태국은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도 방위 관계가 좋은 편이다.

나. 주요 안보 위협

- ❖ **[국경지대의 마약 밀매]**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사이의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을 통한 마약 유입은 태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의 마약 생산센터를 통해 생산된 헤로인, 아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은 태국의 현대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약 유통 및 밀매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태국 내 국경지역 마약 밀매 감시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국경지대의 분쟁 위협]**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4개국과 5,0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지정학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서쪽의 미얀마 국경지역을 따라 벌어진 민족 저항세력, 정부 지원 민병대, 정부군 사이의 충돌이 때때로 태국 내부에까지 파장을 끼치기도 하며 동쪽의 프레아 비히어의 고대 사원의 소유를 중심으로 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2009~2011년 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여러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만큼 국경지대의 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 ❖ **[남부 분리주의자들의 분란 위협]**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숭배하는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남부 뱃따니(Pattani), 알라(Yala), 나라티왓(Naratiwat) 3개 주에 주로 거주하며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종교적, 문화적 이질성으로 오랜 기간동안 중앙정부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의 테러로 2004년 초부터 15,000건 이상의 폭력 사건으로 거의 7,000여명이 사망하고 12,00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으나 여전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 **[테러 위협]** 알카에다, 제마 이슬라미야(JI), 헤즈볼라 등 세계적인 테러조직이 태국에서 활동 중으로 알카에다와 JI 모두 태국을 경유지 또는 공격 계획을 위한 근거지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 ❖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한 긴장 수위]**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가 태국만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ASEAN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긴장이 덜한 상황이다.

4. 한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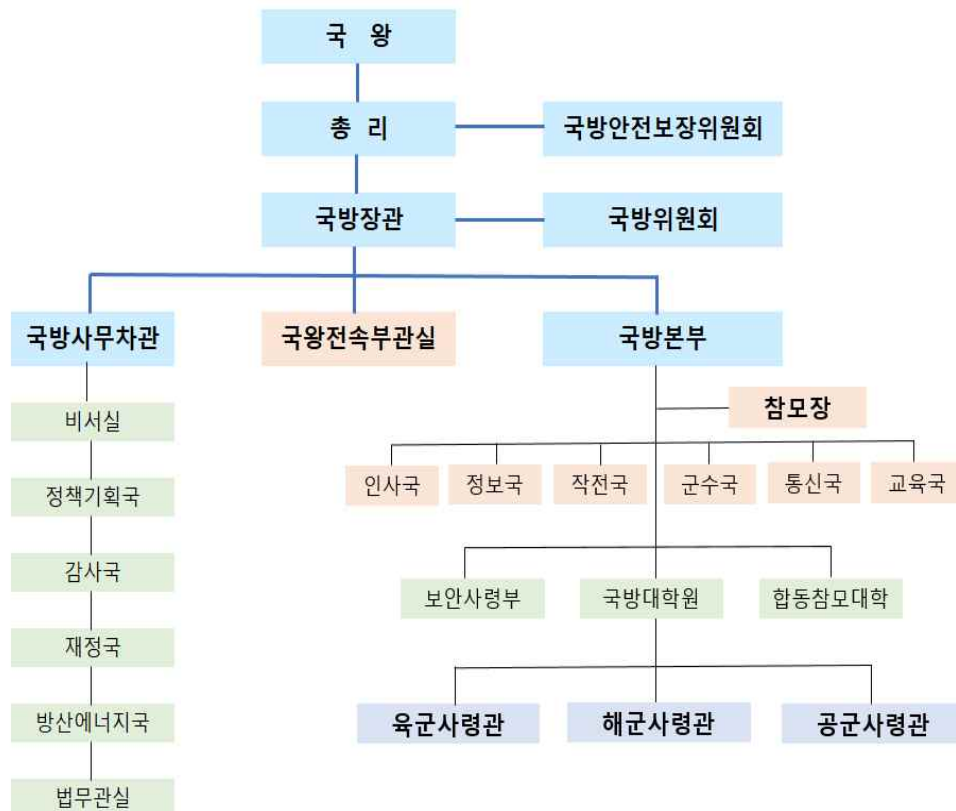
- ❖ 태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 관계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한-태국 주요 수교 일지**
 - 1950.11.7.~1953.7.17., 6.25전쟁 참전: 6,326명(사망 129, 부상 1,139, 실종 7명), 지상군 1개 보병대대, 프리깃함 3척, 수송선 1척, 수송기 3대 등
 - 1958.10. 국교관계 수립¹⁰⁾
 - 1960. 03.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설치, 1961.07. 주한 태국대사관 설치
- ❖ **[한-태국 군사협력 관계]** 태국의 한국전 참전 이후 지속되어온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방산협력을 포함한 상호 군사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1991년 군수협력 MOU 체결 : 체결 이후 연1회 한태 군수공동위원회 개최 중
 - 2012년 국방협력 MOU 체결
 - 2019년 군사비밀 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 : 한국의 34번째 체결국
 - 군 인사 교류, 국방대학원/육·해·공군 참모대/사관생도 등 상호 교환 방문/수업 등

10) 한국의 9번째 수교국이며, 1975.5.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하여 남북 동시수교국임

5. 전력구조 및 군사조직

가. 국방조직 및 지휘계통¹¹⁾

- 태국 군 최고 통수권자는 국왕이며 입헌군주제 특성상 국왕이 직접 군통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총리(국방장관 겸임) 및 이하 각 군 사령관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그림 2-2] 태국 국방부 조직도 및 지휘 계통

- 태국 군은 주권 및 영토 통합성을 수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군주 및 귀족정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한다. 또한, 별도의 임무로 공공질서 확립 및 민간 정부 지원을 위한 사회개발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기타 임무로는 국가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구호활동, 마약 단속 활동 등을 수행한다.

11) 국방기술품질원, "2019 세계방산시장연감 - 태국"

나. 군사력¹²⁾¹³⁾

- 태국군은 국방부 예하 총사령부, 육·해·공 3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내무부 산하에 국경 경비 경찰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2년간 의무 병역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점 방식으로 병력을 징집한다.
- 태국은 Global Fire Power(GFP)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¹⁴⁾에서 138개국 중 23순위 수준으로 군사력 규모가 큰 편이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태국 공군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의 장비와 훈련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표 2-2] 태국 군사력

구분	병력			
	육군	해군	공군	준군사조직
상비군	245,000	69,850	46,000	93,700
예비군	200,000			45,000

- 준군사조직으로선 4만5천 명 규모로 알려진 Thahan Phran 민병대, 4만 5,000명에 달하는 국가안보자원군(National Security Volunteer Force), 경찰항공대(Police Aviation Unit) 500명,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Police) 4만 1,000명, 해병헌병대(Marine Police Force) 2,200명, 특수활동부대(Special Action Force) 500명을 포함하는 5만 명에 달하는 지방경찰부대(Provincial Police Unit) 등이 있다.
- 특히 태국의 경찰군은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권한을 부여 받은 치안 및 안보 조직으로서 국경지역에서의 임무 비중이 군과 다르지 않아 많은 물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AW-189 다목적 헬기를 도입하는 등 신예 장비를 확보해가고 있다.

12) 2019 세계의 군사력 - 세계의 군사력과 국방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 정보사령부

13) 2019 태국 개황, 외교부(2019.11) 중 V. 군사 활용

14) GFP(Global Fire Power)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50개 이상의 요소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의 전력지수(Power Index, PwrIndx) 점수를 결정하여 순위를 제공하며 전력지수는 0을 완벽(Perfect) 상태로 두고 지수가 높을수록 상대적 전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태국의 2020년 PwrIndx는 0.3571로 조사대상국 138개 중 23위를 차지했다.)

제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

- 태국은 공공조달에 있어 '1992년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OPM)이 조달 관련 핵심 규정으로서 투명성, 경쟁, 비용 적합성, 책임성 구현을 위한 선정, 평가방법, 계약제도,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

(OPM,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 목적 : 입찰 투명성 강화 및 중앙집중식 조달로 구조 개선
- 한계점 : 대규모 계약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조달은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

[조달관리위원회(CCP, Committee in Charge of Procurement)¹⁵⁾

제11조(구성) - 총리실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대표 중 5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

제12조(권한) - 조달규정 시행/관리, 조달/구매방법 결정, 세부시행 소위원회 임명 등

가. 국방조달 법령

-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 국가로서 비용 적격성, 공개적이고도 효과적인 경쟁, 책임성, 합리적인 절차, 공정거래, 비차별 등과 같은 조달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국가별 조달 방식의 차이가 인정된다.
- [국방조달 법령]** 국방조달은 2002년에 개정된 「1992년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OPM)」등 다양한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 국방조달과정에 대한 명시적 법령은 없으나 대부분 1992년 제정되어 2009년 최종 갱신된 국무총리실 조달 담당(OPM)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OPM은 조달의 투명성, 경쟁, 비용적합성, 책임성 구현을 위한 입찰자 선정, 평가방법, 계약제도,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15)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OPM)」Clause 11&12

- 국방조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로는 ‘전자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2006)’, ‘공공장려 범죄에 관한 법률(1992년)’, ‘재정 및 예산 규율 감사위원회 규정(2001년)’ 등이 있다.

나. 국방조달 조직 및 의사결정 협의체

- ❏ 태국은 국방 획득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획득계획에 따른 조달(구매)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전문 기관(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단기 또는 긴급 수요가 많은 편이며, 소요 결정 및 조달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정부차원의 의사결정보다는 각 군 단위의 의사결정권이 강한 분권적 형태를 띠고 있다.
- ❏ 대규모 계약의 경우, 국방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국방위원회는 태국의 내각과 함께 국방 및 안보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국방위원회는 조달 요구 및 이와 관련한 예산에 관한 고위급 결정기관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국방위원회의 상세 의사결정 절차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주요 획득계획은 국방위가 권고안을 제시하여 내각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3] 국방위원회 조직 및 위원의 구성

- ❏ 태국의 국방획득은 대체로 긴급 소요나 예산에 따라 각 국방기관별로 수행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편이며 국방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도 명문화된 규정은 부족한 편이다.

- 주요 획득 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획득은 국방부 산하의 조달위원회(국방사무차관) 및 육·해·공 3군의 조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요 및 획득 관련 의사결정을 협의하며, 국방조달 행정에 관여하는 다른 정부 기관으로는 상임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해외국방비 지출) 사무국(해외 국방비 지출)과 감사원(모든 공공 지출을 감시하고 통제) 및 감사관 사무소(기관 지출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관실)가 있다.
- 또한 태국정부는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 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조달이 의무사항은 아니며¹⁶⁾ 국방 분야 조달은 공공경쟁보다는 지명 방식이 더욱 활발한 편으로 기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 조달 및 의사결정절차

- 태국의 국방조달 체계는 조직에 따라 5개 단계의 “상향적” 의사결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

[표 2-3] 국방조달 관련 주요 조직 및 의사결정 역할

조직명		의사결정권자	역할
(1) 소요군	Royal Thai Army (육군)	각 군 사령관	육/해/공 3군 조달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최종 소요제기부대는 필요 성능·규격, 개요 및 소요 근거를 포함하여 조달 제안서 작성
	Royal Thai Navy (해군)		
	Royal Thai Air Force (공군)		
(2) 총사령부 (Royal Thai Armed Forces HQ)		총사령관	소요군 제출 조달 제안서 평가 - 안보전략 기초 및 국방정책을 토대로 평가함 * 조달제안서는 예산처와 함께 정부차원의 비용 조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함
(3) 국방부		장관	국방부 조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국방부사무차관을 중심으로 조달안 평가 - 조달 제안서를 평가하는 선정위원회에는 육·해·공 군의 대표자도 참가함
		차관	
		사무차관	
(4) 내각 및 총리		총리	예산처의 자금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의회 승인전 추가 예산 지원을 위한 조달 제안서 평가 진행
(5) 의회		의장	수년간의 회계연도에 걸쳐 장기소요예산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의 승인 필요 - 의회 예산상입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 연간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요청서 국회제출

16) Acquisition Management, GlobalSecurity.org

- 고가 또는 긴급 전략체계 조달사업의 경우, 국방위원회 등 군 고위직 선의 의사결정에 따라 절차가 무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국방조달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2-4] 태국 국방 조달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 육·해·공 3군 차원에서는 사용군 획득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OPM)에 명기된 대로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1) 중기계획(사업계획) 및 예산 요청
- (2) 요구 사양 제시
- (3) 자원 선택 단계
- (4) 계약 승인(award)
- (5) 조달 승인 및 계약 행정 관리(contract administration)
- (6) 계약 관리(Contract management)

- ❏ 태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조달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별도의 중앙 조달기관이 없으며, 사업별, 기관별로 개별 발주하고 있어 전국에 걸친 조달기관이 200여 개에 이른다.
 - 동일 기간의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에 따른 시기별, 품목별, 규격별로 입찰 건을 분리해 발주하고 있으며,
 - 구매하는 품목별 규격과 설명서, 수량, 금액, 절차, 자격요건, 태국 내 시공 경험 요구, 사후평가 등 상세 정보는 유료로 판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 ❏ 따라서 국방조달을 담당·조율하는 전문 기관이 없고 복잡한 조달 절차를 거치는 태국 국방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이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태국의 5단계에 걸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은 해외기업의 시장진출 시 현지 조력자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3. 예산편성절차¹⁷⁾¹⁸⁾¹⁹⁾

- ❏ 태국의 예산편성은 재무부를 필두로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의 검토와 승인과정의 상세하고 명확한 편이며, 주요 예산안 수립을 위한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중앙 예산안 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예산국(Bureau of Budget), 태국은행(Bank of Thailand),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가 있다.
- ❏ 본 기관들을 통해 예산안 계획을 위한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이 결정되며, 이후 국가예산안 절차에 맞춰 예산안 준비 → 검토 → 집행 →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
- ❏ 정교하고 상세한 절차를 가진 태국의 예산편성은 매해 1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마무리되며, 예산집행 회계연도는 전년도(F-1) 10월 1일부터 금년도(F) 9월 30일까지이며, 상세 예산편성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단, 신정부 출범 시 예산집행은 11월부터 시작한다.)

17) The Thai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5, GlobalData

18) Budgeting in Thailand by Jon R Bloendal and Sang-In Kim, OECD Journal on Budgeting(2006)

19) Thai government survives key test with US\$106bil budget vote, The Star(2020.07.04.)

[표 2-4] 태국의 예산편성 절차

예산안 계획(1월)

태국 재무부 주관으로 예산 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되며, 주로 예산에 적용 가능한 재정수입, 거시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한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을 결정한다.

- 예산안 계획 주요 기관 : BOB(예산국), MOF(재무부), NESDB(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BOT(태국은행)



예산안 준비(2~5월)

해당 기관들은 국가 예산안 절차에 맞춰 주요 예산안 작성하며 작성한 예산안은 총리의 승인을 득한다.

- 월별 준비 내용

- 2월 : 예산국은 기준치(Baseline)를 마련하고, 각 지출부처는 초기 예산 입찰을 준비하여 제출
- 3월 : 개별 부처에서 수립 가능한 총 예산 한도 지정
- 4월 : 지정된 예산한도를 바탕으로 각 지출부처의 2차 예산안 제출
- 5월 : 예산안 최종 검토 및 의회 제출



예산안 채택(6~9월)

완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총3차에 걸친 검토가 진행되며 각 차수별 의원의 투표로 예산안 가결되며 3차 검토가 마무리된 후 왕실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예산 집행(전 회계연도)

BOB와 그 외 예산 관련 기관은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재무부와 공유한다.



예산 집행 평가(전 회계연도)

집행예산의 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전 기간동안 이루어지며, BOB외 관련기관이 관리한다.

- * BOB는 집행 평가와 함께 차년도 가용 예산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함

가. 예산 편성 기관 및 역할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전체 예산안 기획을 총괄하며 재정수입에 대한 원천 정보를 제공한다.
-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 BOB)]** 예산안을 기획하는 중심기관으로 예산국에서 작성한 예산안 내용은 모두 총리실로 직접 보고한다.
 - 주요 임무 :
 - 거시 회계 기준 및 중기 예산 한도 개발
 - 부처의 연간 예산 계획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의회의 예산안 검토·승인 절차 진행 시 행정적 지원
 - 연간 예산 집행 관리(재무부 공유)
 - 집행예산 평가 및 차년도 가용 예산 업데이트
 - 구성 : 예산국은 분석부서 및 정책부서로 크게 구분되며 국장 이하 5명의 정책관(Deputy Director-general) 및 800명 가량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나. 태국 예산편성의 특징

- **[중앙기금(Central Fund) 활용]** 태국 예산 시스템의 특징으로 1959년에 제정된 예산절차법 (Budget Procedures Act)에 따라 중앙기금을 조직하여 총 정부지출의 20%를 총당한다. 기금의 약 80%는 예산편성과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되며, 나머지 20%는 국가경쟁력 사업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이나 긴급 사업을 위한 재량기금으로 운용된다.
- **[친 군사정부 하 의회 영향력]**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의 강한 내부기강 때문에 행정부와 맞서는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감소되었지만,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정교한 예산편성절차 규정 덕분에 예산안을 검토 및 수정에 의회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

1. 주요 무기체계 획득 동향

- 최근 몇 년간 일부 획득사업들이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태국의 국방조달 계획의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조달 계획의 변동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2차 그리펜 전투기 구매사업, 2015년 잠수함 조달사업, 등 일부 국방조달 사업들이 지연된 바 있다.
 - 또한, 금년 4월 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정부부처 예산을 10%씩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S26T 잠수함, Stryker 장갑차, T-50 전술훈련기 등 주요 획득 사업의 연기가 예상된다.²⁰⁾
- 또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잉럭 시나와트라(Yingluck Shinawatra) 총리 정권을 붕괴시킨 2014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태국 방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실제 2014년 쿠데타로 이후 친군부 중심으로 국방 조달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 이러한 조달 환경 변화는 태국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은 국방예산, 정책 및 우선순위의 설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신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절차를 보류하거나 연기함으로써 국방 조달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의 조달 관계 역시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은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태국과의 군사 교류협력 수위를 격하시켰으며 서방 진영의 다른 공급국들도 협력관계를 재조정하여 태국의 조달 관계가 서방국가에서 비서방국가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태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태국의 국외 조달 관계를 변화시켰다.

20) Cabinet shifts budgets into central fund, Bangkok Post(2020.4.22.)

Army defers carrier deal, Bangkok Post(2020.4.22.)

Covid-19: Thai navy cuts spending, postpones submarine procurement, Jane's(2020.4.20.)

가. 전력증강 중점 방향

- ❖ 태국의 국방 조달 소요는 지역 안보 환경 및 특정 안보 위협에 따라 발생한다. 남부지역 반란군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방비의 큰 비중을 육군의 운영 유지(O&M)와 군 인건비(연간 국방 할당량의 80% 정도)에 지출하고 연안지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전력 발전을 위한 자금 배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군예산은 기 진행 중인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 ❖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는 다목적 전투기해상 초계함 및 호위함, 헬리콥터등 의 추가 소요와 지상 전력 체계가 포함되며, 획득 예산은 일반적으로 연간 국방 지출의 약 13%를 차지한다.

나. 육군 무기체계 획득 전망²¹⁾

병력수송장갑차

- ❖ 지난 10년 동안 태국 육군은 남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Reva와 BTR-3E1 병력 수송장갑차(APC)를 인수하였으나, 여전히 M113 APC 및 Textron LAV-150 APC 등 노후화 장비와 구성품 재고를 대체하기 위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 ❖ 이러한 소요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중국의 8×8 VN-1 APC를 주문하였다. 태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의 BTR-4 APC 대신 중국 NORINCO의 ZBD-09 APC의 수출용 버전인 VN-1을 선택하였고, 2017년 태국 지상군은 약 6천만 달러 가량의 VN-1 34대를 발주하였다.
- ❖ 그러나 2018년 신임 육군사령관이 된 Apirat은 중국산 VN-1대신 미국산 M1126 Stryker APC로 대체하여 37대를 계약하여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추가 조달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제약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전차

- ❖ 태국은 약 200대의 주력 전차(MBT)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군은 2011년 우크라이나로부터 49대의 T-84 Oplot MBT(미화 약 2억 달러 상당)를

21) Jane's Market Report 및 Market Forecast,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자료 재구성 이후 해군, 공군 무기체계 획득 전망도 동일 출처를 통해 재구성한 내용임

주문한 후 2018년 1분기 경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나, 동일 모델의 추가 획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국은 대체방안으로 2016년 중국에 VT4 MBT 28대를 주문하여 2017년 말에 인수하였다.

- 그 이후 태국은 2016년 중국 VT4 MBT 28대(미화 1.4억 달러) 주문을 시작으로 2017년 10대(미화 5,800만 달러), 2018년 10대를 추가 주문 후 2019년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구매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곡사포

- 태국 육군은 2008년에 프랑스 넥스터의 Caesar 자주곡사포 6대를 인수하였으나, 2013년 국 육군의 무기생산본부(WPC)과 이스라엘 Elbit 시스템과 ATMOS 2000 자주곡사포 생산 협력을 합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Caesar 자주곡사포를 추가 조달에 대한 추측을 일축했다.
 - 동 합의에 따라 Elbit은 최초 1분은 이스라엘에서 제작하였고 나머지 5분은 기술 이전과 함께 태국에서 조립되었으며, 현재까지 20문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9년까지 24문 가량의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태국 WPC는 자국산 ATMOS 2000 버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육군은 향후 최소 3개 연대 소요분의 ATMOS를 조달할 전망이다. 사업 규모는 2억1,500만 달러로 추측된다.

M113 성능개량 사업

- 태국 육군은 400대 이상의 노후한 M113 APC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APC로 교체하기 이전에 동 장비의 성능개량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M113 성능개량은 최소 엔진 및 변속기(transmission) 부분의 교체가 포함될 것이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BAE SYSTEMS를 포함한 업체들에 의해 몇 개의 배치(batch)로 나누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다.
- 본 성능개량 사업에 해당하는 명확한 수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노후 M113 APC의 절반(약 200대) 가량이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7,500만 달러로 추정된다.

M1126 Stryker 보병전투차량

- 2019년 5월 태국 육군은 M1126 Stryker 8×8 ICV 37대를 입찰하였다. 해당 계약은 9400만 달러 규모로 탑재 무기, 통신장비, 예비부속품, 교육·훈련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23대의 원조를 통해 Stryker 60대를 확보하였다.
- 50대 가량의 추가 주문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해군 무기체계 획득 전망

호위함

- 오랫동안 태국 해군(RTN)은 수상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다목적 호위함 2척에 대한 소요 의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에 태국 국방부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과 호위함 1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 인도 완료하였다.
- 2013년 계약에 따라 2번함 건조를 진행해야 하나 태국 해군은 더 큰 플랫폼의 수를 늘리고 싶은 의향을 알린 바 있어 협의 중으로 2021년경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자국 내 MRO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패키지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

- 2017년 5월 태국해군은 중국 조선해양국제회사(CSOC)와 3척의 S26T(태국) 디젤전기잠수함 중 1척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규모는 미화 3.9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까지 Yuan-class (Type 041) 플랫폼의 변형 모델 S26T 인도 조건이 있다. 또한 운영·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패키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경 S26T 2대를 추가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업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획득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추가 발주의 가치는 미화 11억 달러로 추정되며, 세 플랫폼 모두 2028년까지 작전 운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초계정(Patrol craft)

- 태국 해군은 노후 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해 다수의 획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T 991 (Tor 91 개량모델)m 설계, 21m M21 설계 등이 포함되며, 자국 조선기업 Marsun에서 2014년 경부터 착수한 36m 신형 초계함도 포함된다.
- 추가적으로 Marsun 선박회사에서는 58m 초계함 3척을 건조 중인데, 이 중 첫 번째가 2017년 태국 해군에 인도되었고, 추가 발주가 예상된다. 58m 초계함은 Marsun에서 해군으로 납품한 초계함 중 가장 크며, 520톤급 58m 갑판 설계는 알루미늄 상부구조로 이루어진 강철 선체를 특징으로 하며, 24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
- Marsun사는 태국의 주요 조선기업으로 설계, 건조 및 수리까지 가능하며, 1980년 설립 이래로 260척 이상의 건조 실적이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태국 연안 경비대에 M21 초계함 수 척을 인도했으며, 앞으로 추가 주문이 예상된다.

연안 경비함(Offshore Patrol Vessel, OPV)

- 태국 해군은 연안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의 초계 및 통제능력과 더불어 탐색구조 및 재난구조 능력을 갖춘 연안 경비함(OPV)의 추가 획득에 대한 소요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중국으로부터 1,500톤급 OPV 2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006년경 인수 완료하였다.
- 또한, BAE시스템스는 태국 국영 조선소 Bangkok Dock와 공동으로 OPV 2척 추가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에 선도함을 시운전하였다. 2019년에 2번함도 런칭을 하였다. 총 6척의 함정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규모는 미화 약 4.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해상 초계기

- 2020년경부터 태국 해군은 1980년대에 도입한 Dornier 228호와 Fokker F27 Friendship의 초계기 편대 교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해군측은 가와사키 중공업 P-1 초계기와 에어버스의 C295 해상감시기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 중고 P-3C와 Lockheed Martin SC-130J도 이 기회를 위한 유력한 후보들이며, 사업 규모는 미화 3억 달러 가량이다.

라. 공군 무기체계 획득 전망

기본 훈련기

- 태국 공군은 현재 기본 훈련기 중 최신기가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Pilatus PC-9인 것을 감안할 때 약 24대의 관측/훈련기의 구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PC-9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자국 내에서 최종 업데이트를 마쳤지만 2018년부터 노후화 이슈가 계속되었다.
- 2020년 2월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회계연도 2020~2023 사이에 약 1.7억 달러 가량의 예산 확보를 통해 12대의 훈련기를 확보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Cessna 172 또는 Cessna 182, PAC Mushshak, PZL-104 Wilga와 Slingsby T67M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용 헬리콥터(Combat Helicopter)

- 태국 공군은 1990년부터 취역한 AH-1F 코브라의 소형 편대를 대체할 공격용 헬기에 대한 오랜 소요 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AH-1를 신규 주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터키의 T129 ATAK와 러시아의 Ka-52와 Mi-35 헬리콥터의 주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가까운 시일 내에 6대 가량의 1차 조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에 걸쳐 6대 가량이 추가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체 조달 계획은 경우에 따라 8~12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될 경우, 새로 생산된 AH-1Z 헬기가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달될 수 있음. 예상 획득 시기는 2020년이며, 총 사업규모는 미화 23억 달러 가량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송기

- 태국 공군은 고정익 운송 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수송 작업은 2대의 노후 에어버스(CASA) C212-300 수송기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공군의 고정익 수송 역량 한계에 따라 2016년 7월 태국 공군은 1대의 에어버스 C295W를 인수했으며 최대 4대의 C295W 항공기 또는 동급의 다른 모델 조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펜 전투기 추가 구매사업

- 2007년 10월 태국 내각에서 승인한 11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획득 계약에 따라 SAAB사로부터 12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2013년 9월까지 인도받았다. 이후 태국 공군은 6대의 그리펜 항공기에 대한 추가 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예산 제약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Mi-17 헬리콥터

- 2011년 태국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Mi-17 헬리콥터 3대 중 첫 번째 헬리콥터를 받았고, 뒤이어 2014년 2대를 추가 계약 후 2016년에 인수 완료하였다. 이후 2016년 5월, 태국 공군은 재난구조 작업 및 병력 배치용으로 장기간 운용 보잉 CH-47D 치누크 중(重)수송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10대 이상의 Mi-17 헬기의 추가 조달 계획을 밝혔다.
- 하지만 필요한 획득 예산이 즉각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크며, 사업 규모는 2억 달러임

전투 훈련기 Lead-in Fighter Trainer

- 태국 공군은 2015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T-50 Golden Eagle 고등훈련기(AJT)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노후화된 Aero L-39ZA Albatros 항공기 편대를 대체하는 소요로 1차 분량 4대(미화 1.1억 달러)를 2019년 납품 완료하였다.
- 2017년 7월, 태국 공군은 미화 2억5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T-50 8대의 추가 구매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까지 4대를 납품하였다. 현재 T-50 4대를 추가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발주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F-5 성능개량

- 2017년 태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14대의 Northrop F-5E Tiger II 전투기 편대의 성능개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태국 공군은 향후 15년간 추가 운용할 수 있도록 2,400 비행시간 증대를 성능개량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Elbit Systems사와 자국 기업 RV Connex사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

2. 예산 지출 전망²²⁾

- 태국 국방비는 정국 불안과 경제적 혼란, 2006년과 2014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큰 변동성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대내외 정세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회복 정책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가. 2020년 국방예산 변동

- 2019년 9월 태국 내각에서 승인한 20년도 태국 국방예산은 2019년 대비 1.3% 이상 상승한 약 76억 달러였으나, 지난 4월 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대응 및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10%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²³⁾
 - 이는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시 5% 수준의 예산 감축보다 더 큰 폭의 감축 발표로 이는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한다.
 - 또한, 감축된 국방예산 중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본 운영/유지비용을 줄이기보다는 획득 비용의 감축이 예상되는만큼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조달 프로그램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7월 태국 정부는 2021년 국방 예산으로 72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이는 2020년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초 예산(76억) 대비해서는 오히려 5% 가량 떨어진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회복은 더딘 수준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이후 국방예산은 2~3% 수준의 성장률로 확대되어 2024년 78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2017~2024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²⁴⁾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방예산 (Bil\$, 20년 불변가)	7.217	7.347	7.503	6.763	7.246	7.419	7.609	7.847
성장률(%)		1.80	2.12	-9.86	7.14	2.39	2.56	3.13
연평균성장률 (CAGR, %)	1.30			3.02				

22) Jane's, 「Market Report」('20.8.17. 업데이트) 및 「Defence Budget Overview」('20.6.9. 업데이트) 자료 재구성

23) Jane's, 「Market Report」('19.12.24. 업데이트) 자료로 2019년 불변가로 책정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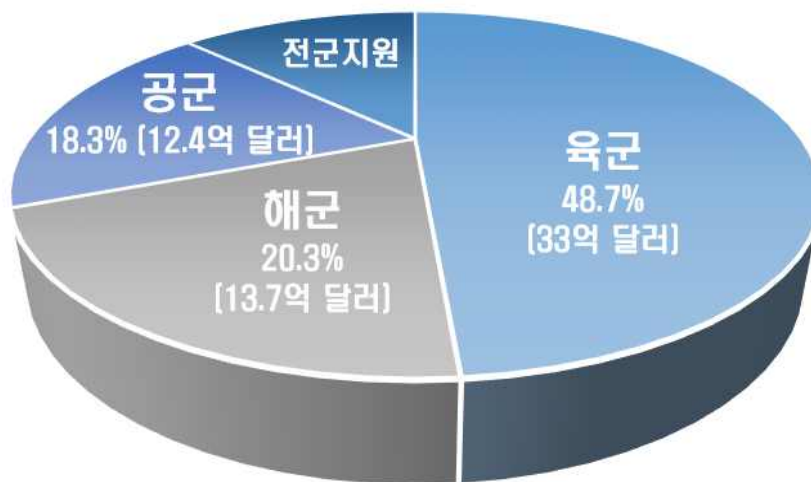
24) 자료 : Jane's Defence Budget

나. 군종별 국방 지출 전망

-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을 군종별로 살펴보면,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32.9억 달러로 전체 국방예산의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해군 13.7억 달러(20.3%), 공군 12.4억 달러(18.3%)를 차지했다.
- 군종별 국방 예산 비중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향후 2024년까지도 큰 변동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군종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단위 : Bil\$)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육 군	3.546	3.580	3.679	3.292	3.500	3.561	3.629	3.719
해 군	1.418	1.460	1.503	1.373	1.442	1.484	1.529	1.585
공 군	1.322	1.330	1.375	1.241	1.241	1.399	1.499	1.561
전군지원	0.932	0.976	0.947	0.856	0.858	0.878	0.900	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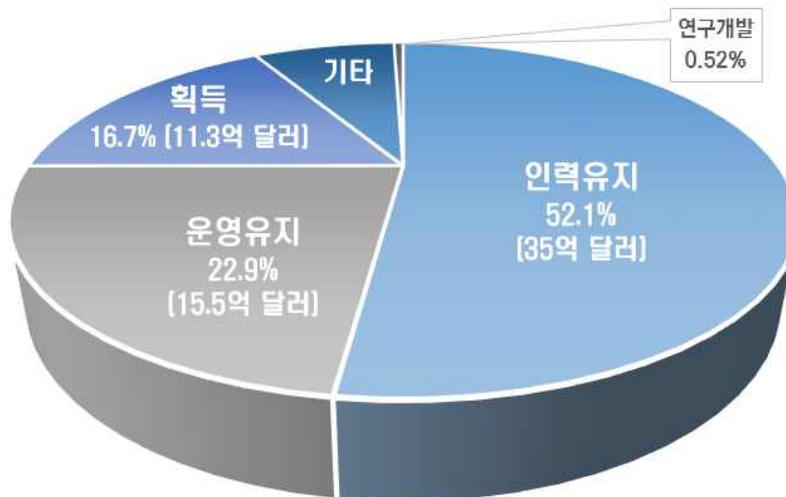
[그림 2-5] 군종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다. 지출 분야별 국방 지출 전망

- 국방예산은 대체로 인력 및 군 운영 유지에 전체 예산의 약 75%가 투입되며 그 외 획득 및 연구개발 외 비용들로 지출된다.
- 아래 표의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중 획득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1년부터 전체 예산은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획득예산의 경우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기존 획득 계획에 변화가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구매를 통한 조달보다는 자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방산역량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7] 지출 분야별 국방예산 배분 추이 (단위 : Bil\$)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획 득	1.002	1.052	1.131	1.130	1.080	1.068	1.033	1.051
연구개발	0.041	0.041	0.041	0.035	0.060	0.069	0.074	0.079
인력유지	3.933	3.918	4.006	3.521	3.604	3.726	3.867	4.004
운영유지	1.733	1.715	1.731	1.549	1.538	1.577	1.647	1.702
기 타	0.509	0.620	0.594	0.527	0.579	0.584	0.583	0.592



[그림 2-6] 지출 분야별 2020년 국방예산 비중

3. 방위산업 역량 및 육성정책

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

- **[허약한 방위산업 기반]** 태국의 국내 방산 기반은 주로 낮은 기술(Low-tech)의 군납용 보급품 생산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해외 기업들이 절충교역 또는 협력 사업을 이행하려고 해도 기술이전과 협력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구매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지난 10년 동안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있었으나 추진 실적이나 성과는 부족하여 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이웃한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태국의 방산 기반은 면허생산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 건조 분야를 제외하고는, 박격포, 폭발물, 탄약 그리고 일부 소화기, 항공우주 및 전자 부문의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 **[국방조달 시장 및 조달기조의 잦은 변동]** 태국의 국방조달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정국의 불안정, 자연재해, 경제불황 등으로 커다란 변동을 겪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국방예산과 방산 투자 수준 또한 급변하며 획득조달 및 연구개발 계획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기도 하였다.
 - Yingluck Shinawatra 총리 행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2014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당시 추진 중이었던 획득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국방조달 환경도 대폭 변화하였다.
 - 그 결과 일부 미·서유럽의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Prayut Chan-o-cha 총리 하의 현 정부와 맺은 계약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태국의 정국 불안정, 즉 신정부에 의해 이전 정부가 도입했던 절차를 보류하거나 국방예산, 정책 설정, 우선순위 및 경제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대외 군사협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군사 지원을 빠르게 중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방협력 수준은 위축되었으며, 동시에 서유럽 기업들도 태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였고, 이에 태국 정부는 국방조달 과정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을 시도하였다.

- 특히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Prayut 총리의 신정부가 직면했던 대미·대서유럽 협력 위축 분위기를 시장 진출 증진의 발판으로 삼아 태국 신정부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 일련의 경험에 따라 태국 정부는 자국 방산 역량 증진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2014년 쿠데타 이후 방산 물자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해외방산업체-자국 방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조달 계획이 있는 연안 경비함, 추가 호위함, 디젤-전기 잠수함, 추가 다목적 전투기 및 헬기, 지상 장갑 체계 (Armoured Land System) 등의 사업 계약 시 기술 이전이나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설비 구축과 같은 자국 방산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나. 방위산업 기반

- 태국의 방위산업은 국가와 군이 소유·감독하는 국영 기업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소규모 민간 기업들이 공생·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국방부는 48개의 군수 기업, 생산 공장 및 개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다 군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 방위산업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외국 기술과 노하우 적용이 요구되지만, 국가적으로 전문지식 개발에 역점을 기울여온 일부 분야는 10여 년간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해외 자원과 기술을 통해 다수의 해군 함정(주로 경비함)을 개발·설계 및 건조 경험을 갖춰 방위산업 중 함정 건조 분야의 능력이 가장 우수한 편이다.
- 지상 무기체계 능력은 기본 탄약 및 총기 생산과 일부 군용 차량과 포병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 항공우주 능력은 주로 MRO 시장을 중점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전자 부문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국방기술연구소(DTI)를 중심으로 무인체계 분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 군방분야 R&D는 국방 사무차관실 소속 국방과학기술국(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DSTD) 소관으로 R&D 사업 수행 시 과제개발 운영 통제권을 가진 소요 3권과 협력하며 운영부서는 군사연구개발센터(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RDC)이다.
- ❖ 앞서 언급했듯이 태국의 방위 산업 역량은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보다 약한 편으로 방위산업 기반이 범위와 역량 면에서 제한적이다. 특히 첨단 지상 체계, 우주 항공 및 국방 전자기술 분야에 한계가 있으며, 함정 건조 분야에 역량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크기가 작은 초계함 위주로 제한적이다.
- ❖ 태국의 방위산업은 전통적으로 태국 군대를 위한 낮은 수준의 보급품 생산과 외국 무기체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정밀 체계의 유지보수도 통상적으로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태국은 모터, 폭약, 탄약, 일부 소형 화기 및 함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장비에 의존하며 국내 기업 납품 수준은 전체 소요 체계 및 장비 중 10% 수준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방위산업 현황

- ❖ 태국 국방부는 48개의 방산물자 및 장비 생산 공장과 개발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시설은 각 군 병기국(Directoratr of Armament)와 총괄정책을 관장하는 국방부 방위산업에너지센터(Defence Industry and Energy Centre)와 연계하여 관리한다.²⁵⁾
 - 태국 지상군이 운영하는 21개 공장(무기생산본부와 지상군폭약공장 포함)
 - 태국 해군의 7개 회사
 -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12개 회사
 - 국방사무처(Permanent Secretary for Defence) 운영 7개(연구개발기관 포함) 회사
 - 태국 왕립군사령부가 운영하는 1개 회사

25) 상세 운영 기업 및 정보는 부록 3.방산기업 목록에 제시

- ❖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장 및 시설 이외에도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들도 40여 개가 있다. 이들은 주로 군부가 관리 감독하는 군수 공장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상 체계와 해군 함정 건조 부문에서 각기 대표적 위상을 누리는 기업인 Chaiseri와 Marsun 경우에도 1단계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 ❖ 태국 정부는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이 낮은 다수의 방산기업 구성된 환경 하에서 첨단 군사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응집력, 경쟁력 및 개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군수생산 시설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 ❖ 산업 역량의 선진화 사업의 주도기관은 해외기업과의 연구개발과 협력을 통해 태국 군사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2009년 1월 설립한 국방기술연구소(Defence Technology Institute; DTI)가 있다.
 - 현재 DTI는 장갑차량, 다련장로켓 그리고 무인기 개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 DTI가 선도적인 국방 R&D 수행 기관이라면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기술국(DSTD)과 운용 부서인 군사연구개발센터(MRDC)는 국방R&D 사업 운영 및 진행을 담당한다.
- ❖ 현재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기술연구소(DTI)가 절충교역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정책개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사업청(DAPA)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국방기술청(DTA)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2020년 말까지 공식 출범할 것으로 계획 중인 국방기술청(Defense Technology Agency, DTA)는 2017년 제안된 법안에 따라 국방 조달, 수출, 방산발전 및 절충교역을 전담할 예정이다.
- ❖ 태국은 현재 성문화된 절충교역제도는 없으며 현재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기술연구소(DTI)가 절충교역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 ❖ 태국은 성문화된 절충교역 제도는 없으며 태국 내 제도명은 Countertrade로 불린다. 태국의 절충교역은 해외 무역거래 증가,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 제품 가격하락 현상에 대한 도움, 협상력 강화, 수출 다변화 및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⁶⁾

26) Thailand Offset Policies, Jane's 및 해외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방위사업청(2015.2.) 재구성

※ 절충교역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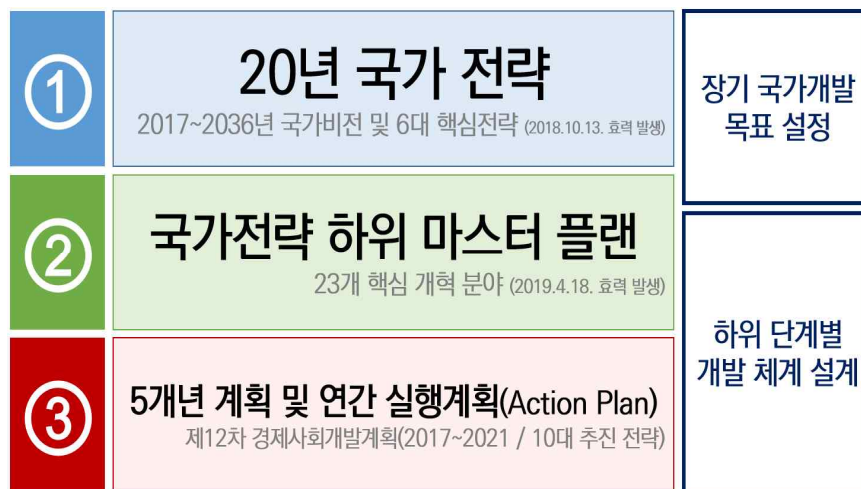
- ① (최소 적용비율) 기본계약금액의 20~50%
- ② (최소 적용금액) 5억 바트(THB) / 약 15백만 달러
- ③ (절충교역 허용분야) 간접 분야, 민수 및 군수분야 대응구매(Counter-purchase)
- ④ (가치승수 적용) 정책 없음
- ⑤ (기본계약과 절충교역과의 관계) 절충교역 계약(Counterpurchase Agreement)이 체결된 이후 기본계약 체결

※ 절충교역 추진체계

- ① (절충교역 이행기간) 계약종료 2개월전
- ② (이행 및 성과관리) 국외업체는 절충교역(대응구매) 이행 후 DFT에 입증서류 제출
- 상업송장 (Co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은행대기통지서(Credit Advice))
- ③ (국내참여업체 선정) 해당 없음
- ④ (가치축적(Banking) 제도 운영여부) 해당 없음
- ⑤ (가치상계(SWAP) 제도 운영여부) 해당 없음
- ⑥ (이행보증금) 대응구매 금액의 5%를 은행보증(Bank Guarantee)으로 발행해야 함
- ⑦ (패널티 여부) 미이행가치의 5%

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²⁷⁾²⁸⁾²⁹⁾

- 태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태국 4.0정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을 비전으로 2017년부터 2036년까지 태국의 선진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하는 「20년 국가전략(20-Years National Strategy)」를 수립하였다.
- 「20년 국가전략」은 6대 핵심전략 ①국가안보(Security), ②국가경쟁력강화(Competitiveness Enhancement), ③인적자본 개발 및 강화(Human capital Development & Strength), ④ 사회적 결합 및 평등(Social Cohesion & Equity), ⑤친환경(지속가능한) 개발 및 성장(Eco-Friendly Development & Growth), ⑥공공분야 재조정 및 개발(Public Rebalancing & Development)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전략에 따른 23개 핵심 개혁분야를 선정하여 2019년 하위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그림 2-7] 태국 국가발전 계획 수립 과정

- [20년 국가전략]** 태국 정부는 20년 국가전략의 6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방위(안보)산업 개발 및 특별경제지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활용한 방위산업 기반 시설 개발 등의 하부 전략과제를 지정하여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27) 2019 국별 진출전략 - 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8) Meeting on Thailand's 20-Year National Strategy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2019.9.27.)

29)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0.5.4.)

- 6대 핵심 전략 중 ❷ 국가경쟁력강화의 세부 개발 분야에서 국가안보산업 및 경제특구수역 개발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 국가안보 산업 및 특별경제지구(SEZ)의 주요 하위 실행 계획(Action Plan) 다음과 같다.
 - 군수품 및 무기제조 산업 육성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수출형 산업으로의 전환
 - 국가안보산업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 정부가 지정한 특별경제지구 중 하나인 Kanchanaburi 지역일부에 헬기, 포병, 화기 장갑차량 등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³⁰⁾

[표 2-8] 핵심전략❷ 국가경쟁력강화 세부 개발분야

National Strategy on Competitiveness Enhancement		
번호	전략 과제	주요 개발 분야
1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분야 탐구 (Exploring Value-added Agriculture)	▶ 지역특산품목 개발 분야 ▶ 안전한 농업 시스템 개발 분야 ▶ 유기 농업 분야 ▶ 유통가공 농산물 분야 ▶ 스마트 농장 시스템 개발 분야
2	미래 산업 및 서비스 개발 (Developing Future Industries & Services)	▶ 바이오 기술 분야 ▶ 통합 의료 서비스 분야 ▶ 디지털, 데이터, AI 산업 분야 ▶ 수송 및 물류 산업 분야 ▶ 국가 안보 산업
3	다양한 관광 산업 창출 (Creating Diverse Tourism)	▶ 창조적·문화적 관광 분야 ▶ 사업(Business) 관광 분야 ▶ 고급 의료·웰빙·뷰티 관광 분야 ▶ 해상 관광 분야 ▶ 역내 국경간 관광 분야 (Regional Cross-border Tourism)
4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Developing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o Connect Thailand with the World)	▶ 단절 없는 교통(Seamless transport) 네트워크 ▶ 특별경제지구(SEZ) 개발 ▶ 경제구역/도시 확대 ▶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화
5	현대적 기업가 기반 경제 개발 (Developing a Modern Entrepreneurship-based Economy)	▶ 스마트 기업가 육성/개발 ▶ 첨단 금융 서비스 구축 ▶ 시장 접근도 향상 ▶ 정보 접근가능도 향상 ▶ 공공 서비스 분야 접근도 향상 및 역할 조정

30) Thailand plans new defence industry estate, Jane's News(2020.6.25.)

- ❏ **[제12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17~2021)]** ‘20년 국가전략’에 의한 근거한 5개년 계획 (Master Plan)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부전략과 중점분야는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을 중점 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다.
- ❏ **[동부경제 회랑(EEC)]** 제12차 경제사회개발 계획 중 동부지역을 산업중심지로 개발하여 태국인 및 외국인의 개발 투자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동부경제화랑(East Economic Corridor, ECC) 정책이 있다.

 - ‘동부경제 회랑(EEC)’ 계획에 기반하여 Chonburi에 있는 태국 해군의 Mahidol Adulyadej 조선소와 U-타파오 인근 해군 항공기지를 포함한 지역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방위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강조한 두 가지 핵심 분야인 함정 건조와 항공 MRO 서비스를 위한 투자와 능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 그러나 정부의 노력 대비 낮은 산업역량과 안보 환경의 절박성 수위(주변국의 위협정도) 및 제한된 자금력으로 인해 이러한 방산육성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수출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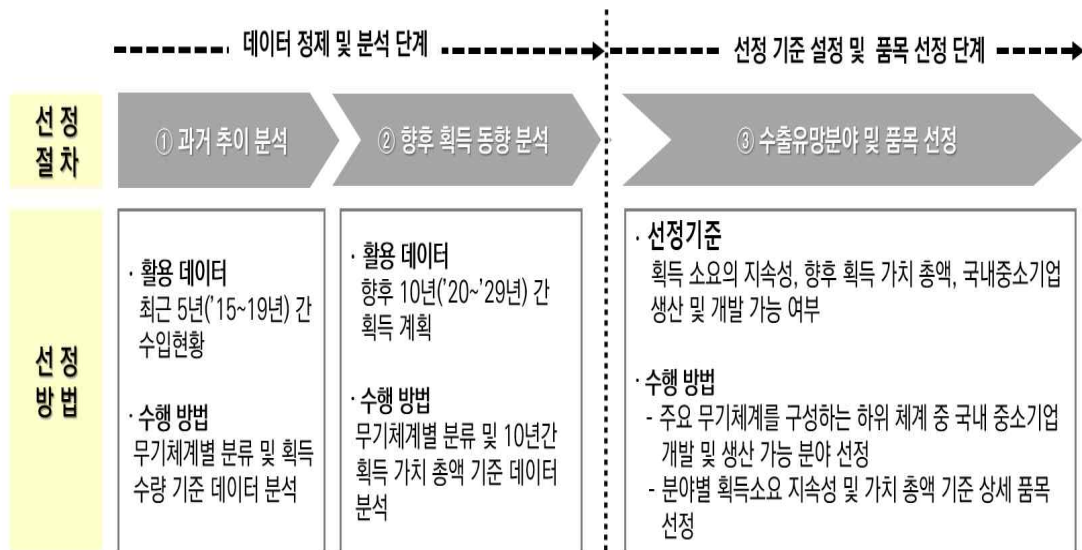
- ❖ 태국의 획득 정책 및 의사결정 절차, 주요 획득 프로그램, 예산 편성 현황, 방산역량 등의 국방조달 시장 환경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태국은 자국 방산역량이 부족한 편으로 주요 무기체계 및 유지보수를 해외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어 국내 방산 기업의 태국 국방분야 진출에 용이한 요인도 있으나 예산 및 획득 계획의 변동,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 등 시장 내부의 문제점도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 방산 기업의 태국 방산시장 수출 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야기한다.
- ❖ **[국방조달 전문기관의 부재]** 태국은 국방조달을 담당·조율하는 전문기관이 없으며 복잡한 조달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 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방관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달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 **[방위산업 정책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태국 방위산업을 운영 기관 및 인력 모두 부족한 편으로 기술 이전과 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식 문서화된 정책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상호간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 **[조달정책의 일관성 부족]** 태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국방부 고위인사가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이전 책임자 하에 결정되거나 논의되었던 사항들의 변경·취소로 일관성 있는 조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 **[자금의 부족]** 일관성있는 조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속적인 국방조달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부족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계획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사업의 변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 **[언어적 문제]** 태국의 조달 계획(정책, 요건, 목표, 입찰자 등)에 대한 영어로 된 공시 정보가 부족하여 조달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점도 기업 진출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 태국 국방부는 획득 계획, 로드맵, 연간회계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태국어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국방부 산하 부처별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체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 수출 유망 품목

가.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 태국은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최근 무기수입 현황을 통한 최근 수입 동향 및 향후 10년('20년~'29년) 간 획득 계획 분석을 통해 주요 수입 체계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과거 수입현황과 획득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수입 체계 분야 중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품목에 대한 상세 획득 계획을 살펴보았다.



[그림 2-8]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나. 태국 무기 수입 현황

- 태국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의 무기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동 기간 내 수요가 꾸준한 증가하는 무기체계는 기갑차량, 레이더, 무인체계(UAV)가 있다.

[표 2-9] 태국 2015~2019년 체계별 수입 현황 (단위:UNIT)³¹⁾

체계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미사일	174	102	50	42		368
기갑차량	1	28	49		105	183
화기	21			6	18	45
레이더	6	3	14		13	36
헬리콥터	14	7	2	4	8	35
엔진	8	7	8		4	27
포		10			12	22
항공기	6	2	8			16
EO			14			14
UAV			4	2	7	13
음파탐지		2				2
잠수함			1			1

* 표기 년도는 발주년도를 의미함

무인기(UAV) 분야

-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특히 주목해야할 분야로 최근 2017년부터 발주를 시작하여 2019년까지 계약이 집중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 가능한 기회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은 지난 3년간 오스트리아 및 이스라엘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 태국은 2017년 Elbit Systems사의 Hermis-450 4대(2,800만 달러), 2018년 Aeronautics사로부터 Dominator-2 무인항공기(UAV) 2대(2,700만 달러)를 구매하였으며 2019년 태국 해군은 Aeronautics사의 소형전술 무인항공기 Orbiter-3 획득하였다.
 - [오스트리아]** 2019년 태국 해군(RTN)은 프리깃 함대에 배치할 감시정찰용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 UAV 2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태국 방산기업 MoraThai Defence Company와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다.

31) 자료 :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Trader registers

- 해당 계약은 상업적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성사되었으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태국 방산기업과 제휴를 맺었으며 기술이전이나 공동생산 등의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의 무인기분야 최근 획득동향을 살펴보면 기술이전이나 공동생산 등을 통해 자국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태국은 국방기술연구소(DTI)를 주축으로 UAV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공동기술개발 소요가 예상된다.

- DTI는 2012년 UAV 마스터플랜을 국방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UAV 분야 연구개발 및 자국 군에 시험 납품을 하고 있다. DTI는 UAV 연구개발의 지속 및 기술 자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분석 및 시험 평가 능력까지 확보해갈 것이라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다.³²⁾

[표 2-10] 태국 운용 및 개발 중인 무인기의 분류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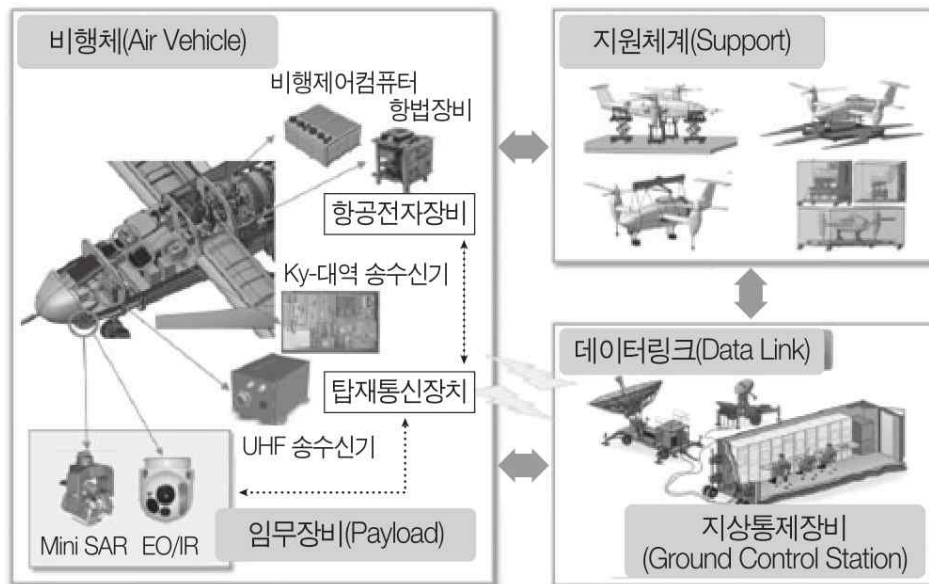
임무	형태	크기	고도
정찰용 (Reconnaissance)	고정익 (Fixed-wing)	소형 (< 10m)	저고도 (< 150m)
수송용 (Carrier)	회전익 (Rotary-wing)	중형 (< 20m)	중고도 (< 14km)
공격용 (Tactical)	수직이착륙 (VTOL)	대형 (≥ 20m)	고고도 (< 20km)

❏ DTI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목표로 미루어보아 향후 무인기 비행체뿐만 아니라 체계를 구성하는 통신 및 지휘통제체계, 전자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 무인기시스템은 [그림2-7]과 같이 비행체뿐만 아니라 와 무인기를 원격지에서 조종하는 지상 통제장비(Ground Control Station, GCS), 비행체와 GCS 간 명령, 상태, 위치, 자세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링크로 구성되며, 비행체 내부는 항법장비, VHF/UHF 송수신기, EO/IR 등과 같은 임무장비(Payload)로 구성된다.

32) Annual Report 2016, Defence Technology Institute(DTI)

33) 무인기 ICT 기술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그림 2-7] 무인항공시스템(UAS) 구성도³⁴⁾

다. 향후 10년 간 획득 계획³⁵⁾

- 태국의 향후 10년(2020~2029년)간 획득 계획 중 진입 기회가 존재하는 소요로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있었지만 계약자가 미확정되거나 공표되지 않았으나 분석에 따라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획득계획만 설정하여 무기체계별로 분류하였다.
- 향후 10년 간 획득계획 중 시장 진입 기회 요인이 존재하는 무기체계별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통신체계, 지휘통제체계, EO/IR, 시뮬레이션, 무인체계(UAV, USV, UGV 등 관련 체계 포함)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1] 태국 2020~2029년 체계별 획득 계획 (단위:Mil\$)

체계구분	확정획득계획 ^{*)}	예상획득계획 ^{**)}	총 계
항공기	3,210.64	733.91	3,944.55
함정	2,062.66	22.72	2,085.38
기갑차량	1,147.03	474.1	1,621.13

34) 무인이동체산업의 국내 역량분석 및 정책방향 - 드론 및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2016-268, 산업연구원 (KIET)(2016.5.)

35) Market Forecast, Jane's

체계구분	확정획득계획 ^{*)}	예상획득계획 ^{**)}	총 계
통신체계	207.27	454.38	661.65
지휘통제체계	178.32	306.98	485.3
미사일	124.94	554.43	679.37
레이다	351.13	301.04	652.17
EO/IR	213.03	218.74	431.77
유도무기	173.31	63.96	237.27
음파탐지	218.33	8.62	226.95
UAV	2.83	122.11	124.94
USV	10.37		10.37
시뮬레이션		8.63	8.63
UGV	3.33	3.85	7.18
총합계	7,903.19	3,273.47	11176.66

*) 확정획득계획 : 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획득소요로 계약자가 미확정인 계획

*) 예상획득계획 : 분석가 활용한 향후 예상되는 획득계획

- 통신체계, 지휘통제체계, EO/IR, 시뮬레이션 체계 분야는 완성체계에 대한 후속 획득인 경우가 대다수로 이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당 완성체계를 공급하는 방산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편입하는 전략을 통한 시장진입이 요구된다. ³⁶⁾
- 또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은 4차 산업 기술 개발 정책, 대내외 안보 위협에 따른 국토 방위, 자국 방산 자립도 증대, 부족한 조달예산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에 따라 무인체계 분야 개발 및 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는 과거 5년 간 수입현황 및 향후 획득계획의 증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인체계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조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민수분야 상용 드론시스템의 스피온(Spin-On)³⁷⁾을 통해 태국 정부의 요구 성능에 맞춘 체계를 공급하거나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무인체계에 대한 산·학·연·관의 연구개발 통한 기술적 준비가 요구된다.

36) 각 유망 체계별 상세·추가 획득 계획 내용은 부록1. 향후 획득계획을 참고 바람

37) Spin-On : 군이 민간에서 상업화된 다양한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신뢰성을 높여 활용할 목적의 기술개발

통신체계 분야

- 통신체계 분야의 주요 획득계획은 크게 무인체계 지상관제용 통신장비와 함정 내·외 통신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 무인체계용 통신장비는 무인체계 개발·생산 기업을 주축으로 요구되는 지원 장비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 또한 함정 내·외 통신 시스템의 경우, 도입하고자하는 신규 함정의 구성품의 형태의 획득 소요가 대부분으로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편입하여 진출하는 전략과 강구해 볼 수 있으며, 태국은 자국 조선기업(Marsun, Bangkok Dock 등)에서 초계정 등이 생산 가능한 역량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통신 기술 관련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2-12] 태국 '20~'29년 통신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APC VHF Radio	10.02	M113 보병수송장갑차(APC) 교체 수요
APC Intercom	6.68	
Future Frigate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	8.46	노후 Knox-class 호위함 교체 수요에 대한 함내외 통신 장비 및 전자전 장비
Future Frigate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	6.05	
Future Frigate CESM	6.47	
HLS Mini UAS GCS VHF/UHF Radio	0.37	국토보안용 소형무인기 획득 소요에 대한 V/UHF 무선 통신 및 피아식별장비
HLS Mini UAV IFF	0.20	
HLS Mini UAS GCS Datalink	0.17	
Tactical UAV Datalink	0.33	태국 공군 U1 UAV 교체 수요
Tactical UAV GCS Datalink	0.24	
UUV Acoustic Datalink	0.11	무인잠수정 획득소요에 대한 데이터링크 시스템
UUV Datalink	0.07	
Control Station Datalink	0.07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예상획득계획		
AORL Datalink	0.27	신규 도입예정 보급선 1함과의 데이터링크 시스템
AORL External Communication System	0.14	신규 도입예정 보급선 내부통신시스템 (모든 라디오 주파수 포함)
MALE UAV SATCOM Datalink	4.57	태국육군용 중고도 UAV 획득 예상소요에 대한 위성통신 데이터링크
MALE/HALE UAV SATCOM Datalink	3.56	중/고고도 UAV용 위성통신 데이터링크
VTOL UAV SATCOM Datalink	3.34	수직이착륙 UAV 위성통신 데이터링크
Mini UAS GCS VHF/UHF Radio	0.87	일발감시정찰용 소형 UAV 지상관제소용 무선통신 장비
MALE UAV IFF	0.27	중/고고도 UAV용 피아식별장비
Mini UAV Datalink	0.18	일발감시정찰용 소형 UAV 데이터링크
Mini UAS GCS Datalink	0.06	일발감시정찰용 소형 UAV 지상관제소 데이터링크
Mini-Flail UGV GCS Datalink	0.01	지뢰제거용 UGV 지상관제소 데이터링크

지휘통제체계 분야

- 통신체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인체계의 지휘·통제를 위한 관제시스템의 획득계획으로 무인체계 개발·생산 기업을 주축으로 요구되는 지원 장비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태국의 무인체계 자체 개발·생산 의지를 고려하여 관제 시스템 운영·유지 기술 이전 및 운용자 교육·훈련 등의 패키지 제안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

[표 2-13] 태국 '20~'29년 지휘통제체계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Combat UGV GCS	0.31	도입 예정 전투용 UGV 지상관제소
HLS Mini UAV GCS	0.04	국토보안용 소형 UAV 지상관제소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Tactical UAV GCS	0.03	공군용 전투용 UAV 후속 획득사업
예상획득계획		
MALE UAV GCS	19.49	신규 중고도 UAV용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 Station, GCS)
MALE/HALE UAS GCS	26.79	신규 중/고고도 UAS용 W지상관제소
Mini UAS GCS	0.07	소형 UAS 지상관제소
Mini-Flail UGV GCS	0.17	원격조정지뢰제거차량 교체 또는 증축을 위한 소형 Flail UGV 지상관제소
MOD Datacenters	64.72	태국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VTOL UAS GCS	6.48	태국군 신규 도입 예정인 해상용 수직이착륙 UAS 지상관제소

EO/IR(전자광학/적외선) 시스템

- [표2-13]의 주요 획득 계획을 살펴보면 야간 투시 기술 및 상황인식 기술이 요구되며 해당 분야는 미국의 선진 기술과의 기술 격차가 큰 편으로 정부차원의 과제 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표 2-14] 태국 '20~'29년 EO/IR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Driver's Night Vision System(DNVS)	26.98	장파장적외선(LWIR)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야간투시체계
Situational Awareness System(SAS)	21.74	개인 및 차량 위협 및 주변 상황 인식시스템
예상획득계획		
Aviator's Night Vision Goggles	5.67	영상증폭관 기술을 탑재한 헬멧장착 야간투시경
Driver's Night Vision System(DNVS)	10.92	장파장적외선(LWIR)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야간투시체계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Night Vision Goggle	15.34	영상증폭관 타입의 양안형 야간투시경 (단안/양안 모두 가능)
Situational Awareness System(SAS)	18.63	개인 및 차량 위협 및 주변 상황 인식시스템
Thermal Imaging Camera	0.61	라오스 국경감시용 팬텀IR과 유사한 휴대용 열상카메라
Thermal Weapon Sight	6.67	7.62mm 제식소총용 야간 조준경

시뮬레이션

- 주로 항공용 지상훈련시스템이 대부분이며, 운용 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절감을 목표로한 소요로 파악된다.

[표 2-15] 태국 '20~'29년 시뮬레이션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예상획득계획		
Maritime Helicopter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GBTS)	4.84	해상용 헬기 지상훈련시스템 (시뮬레이터 및 훈련장비, 코스웨어(courseware) 및 관련 설비 포함 승무원 및 정비인원 훈련 프로그램)
MPA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GBTS)	3.79	해상초계기(MPA)용 지상훈련시스템 시뮬레이터 및 훈련장비, 코스웨어(courseware) 및 관련 설비 포함 승무원 및 정비인원 훈련 프로그램

무인체계

- 대내외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국경·연안 감시정찰을 위한 중고도·고고도 무인항공기 소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16] 태국 '20~'29년 무인체계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확정획득계획		
HLS Mini UAV	0.61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HLS)용 소형 UAV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Tactical UAV	0.95	태국 공군 U-1 UAV 대체소요 ISR(감시정찰) 및 전투능력을 겸비한 UAV
RTN U-1 UAV	1.27	태국 해군 U-1 전술 UAV의 훈련 및 정찰용 UAV
Medium Combat UGV	3.33	무인 궤도 하이브리드 원격 전술 차량(Tracked Hybrid Modular Infantry System, THeMIS)
UUV(Unmanned Undersea Vehicle)	10.37	Geata / Lat Ya급 기뢰제거함의 중장기 성능개량 프로그램
예상획득계획		
Aerial Target Service	5	무인기용 공중표적 탐지 장치
MALE UAV	53.72	육군용 중고도 UAV (이스라엘 Hermes-450 후속 구매)
MALE/HALE UAV	52.94	국토안보 및 국경 감시용 중고도/고고도 UAV
VTOL UAV	9.27	해군용 수색 및 구조 임무용 수직이착륙 UAV
Mini-Flail	3.85	지뢰제거용 원격조정 UGV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3장

시장진입 전략

제 3 장

시장 진출 전략

제1절 시장 환경 분석(SWOT분석)

제2절 시장 진출 전략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시장 환경 분석(SWOT분석)³⁸⁾³⁹⁾⁴⁰⁾

1.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태국의 경제, 정책, 예산, 조달과정, 경쟁 환경 등을 종합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으로 시장 환경 특성을 구분하였다. 2절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장 환경 요인의 조합을 통해 국내 기업 시장 진출 시 고려해볼 수 있는 강점-기회, 강점-위협, 약점-기회, 약점-위협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 3-1] 태국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38) 위탁연구용역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39)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태국'

40) The Thai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5, GlobalData(2020.3)

2. 강점(Strengths)

- ❖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시장이다. 특히,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무역 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 가능하며, 베트남도 바트(Bhat)화 결제를 인정할 정도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 ❖ **[높은 무역의존도]** 태국의 2019년도 무역의존도⁴¹⁾는 110.5%(World Bank기준)로 조사 대상 264개국 중 41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전체 제조업 기준이긴 하나 낮은 군수품 생산 능력을 고려해보면 국방 분야의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을 것이다.
- ❖ **[방위산업 육성 정책]**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 4.0’ 정책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구조 변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의 자국화 및 수출산업구조 전환,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국방산업 발전’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국방예산의 증가 추세]** 2014년 쿠데타 이후 국방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14년 61억 달러에서 '20년 76억 달러 수준으로 26%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 다음의 강점이 있다.⁴²⁾

 - 제한된 예산 규모이나 군사령관이 소요와 구매를 결정하면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로 예산이 설정된다.
 - 군사정권의 통치로 인한 방산조달 방면 예산 편향 등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 보장되며,
 - 군 현대화 전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 **[도입선 다변화 노력]** 2014년 쿠데타가 미국·유럽국들과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한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체계에 한동안 의존하는 형국이었으나 미흡한 품질에 대한 실망으로 도입선 다변화 시도 중이다.

41)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 / GDP

42)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방예산이 삭감되었으나 20년 초기 설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약점(Weaknesses)

- ❏ **[국방조달 절차의 비효율성]** (1) 획득 절차가 불분명하고, 획득 시기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경향이 강하며, (2) 소요군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3) 전략체계 획득의 경우, 지역 세력 규모와 정치이해에 따른 연정 하에서 전임-현임 간 힘의 균형에 따라 국방획득 결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계별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태국은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편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 ❏ **[가격경쟁력 중시]** 최근 태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이 군 현대화의 동력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국방조달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 조달에 부족한 자금을 해외 차관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 일정을 연기하거나 장기거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 도입선 다변화와 가격우선정책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장비 혼용으로 군이 사용해 온 미국산 장비의 노후화에서부터 최근 도입한 다국적 장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조달 기준으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존한다.
- ❏ **[공개경쟁 조달의 부족]** 군정 하에서 대체적으로 정부간 조달 또는 지명입찰 조달 방식을 선호하여 공개경쟁 조달의 기회가 적다. 이는 국방 분야 획득 및 조달 관련 부패도와도 연관이 있어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태국의 CPI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점으로 조사대상 192개국 중 101위로 낮은 그룹에 속한다. 2018년 대비 8순위가 낮아졌으며,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이다.
- ❏ **[중앙 조달 기관의 부재]** 태국은 전체 조달을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할 중앙 조달기관이 없어 소요군별, 사업별, 기관별로 개별 발주하고 있어 해외 기업이 소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해외 에이전트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태국 국방부는 국방기술연구소(DTI)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방기술청(DTA)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말까지 공식 출범할 DTA는 국방조달, 수출, 방산 발전 및 절충교역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기회(Opportunities)

- [한국 장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육·해·공 3군 모두 한국산 무기체계 및 장비를 구매한 경험에 있으며, 자국의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자국 방산 기반의 강화 의지와 한국산에 대한 높은 신뢰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증진에 호기로 작용할 것이며, 지난 수십년 동안 의존했던 미국산 체계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산 장비의 대체용으로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특히 한국산 고등훈련기(T-50) 및 호위함 획득 이후 한국기업의 빈틈없는 후속 지원을 경험하면서 한국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되어 후속 도입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 후속 수출가능 장비: 훈련기 및 공격기, 2차 호위함,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 [중국산 도입품에 대한 불만 고조]** 중국산 체계부품의 낮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인 이유 혹은 군 고위직의 친중 인사 증가로 인한 중국산 체계 구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비싼 미국산과 저품질 중국산의 대체제로서 한국산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노후화 장비의 교체]** 태국군 전반에 걸쳐 저조한 장비 가동률은 현안 중의 현안으로 수명주기를 넘은 노후체계들로 인해 대체무기 소요와 정비·업그레이드 소요가 높은 상황이다.
 - 군 자체에서 하던 체계조립 및 창정비를 외부 전문 정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로 한국의 숙련된 기술부서관, 방산기능인(50대 이상)들에게 재취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⁴³⁾
- [미약한 생산 기반]** 가파른 경제성장세와 방산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생산기반이 미약해 부품 공급과 정비를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 측면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정비·수리, 부품 시장은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43) 상세 노후화 장비 내역은 부록3 참조

5. 위협(Threats)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비축소⁴⁴⁾]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 국방예산의 약 5.8억 달러를 감축하여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 국방예산(약 76억 달러)의 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예산감축 발표로 인해 진행 중이던 주요 획득사업의 지연이 예상된다.

- 2020년 7월, 2021년 1차 국방예산안(72억 달러)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최초 예산대비 3.6% 가량 감소하였으나 4월 한차례 감축된 예산 기준으로는 5% 가량 증가하여 국방예산 수준 회복 및 주요 획득 재추진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이 있으나 획득예산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표 3-1] 예산감축에 따른 지연 예상 획득 사업

소요군	도입 장비	예상 사업규모	비고
육 군	미국 Stryker 장갑차	50대 (USD1.4억)	대외군사판매(FMS)를 활용하여 130대 중 80대 무상공급 예정
	주력전차	117대 (USD5.5억)	태국 육군은 총200대 분량의 주력전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중국 전차 도입 후 추가 획득을 고려 중
	병력수송장갑차	162대 (USD2.7억)	기존에 보유한 M113 및 LAV-150의 교체장비
해 군	한국 호위함	1척 (USD5.6억)	2018년 1차 batch 납품 이후 추가 수주 대기 중으로 6차 batch까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 S26T잠수함	2척 (USD6.8억)	1차 계약(2017년) 이후 추가 구매
공 군	한국 TH-50 전술훈련기	4대 (USD1.1억)	1차(4대/USD1.1억), 2차(8대/USD2.5억) 납품 이후 추가구매
	기본훈련기	12대 (USD1.3억)	1990년대 도입된 PC-9 교체 장비
	공격용헬기	6대 (USD1.2억)	1990년대 도입된 AH-1F 교체 장비

44) COVID19: Thailand proposes 2021 defence budget reduction, Jane's Defence Weekly(2020.7.2.)

- ❖ **[외국인투자규제]** 군수물자 제조분야는 태국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 50% 미만 소유(단, 내각 동의하에 60%(또는 75%)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한국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에 제한이 있다.
 - 태국은 최근 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확대범위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 ❖ **[친군사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 군쿠데타를 통한 군부 정권의 집권 과정을 경험한 태국 국민들은 고가 무기 구매 및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하며, 정부가 국가 방위력 강화보다는 경제 개발을 통한 민생 안정에 몰두해 줄 것을 희망한다.
- ❖ **[대체제의 위협]** 태국의 자체 생산 능력 및 주요 공급자의 부재로 해외의 다수 기업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태국 정부의 도입선 다변화 획득 기조와 맞물려 다수의 공급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대체제의 위협이 상존한다. 또한 태국의 중립 외교 및 다수의 무기 공급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는 이러한 대체제의 위협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07년 전투기 조달 사업 시 4기종의 모델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제 2 절 시장 진출 전략

1. SO 전략 (강점-기회 전략)

가. 우방관계를 활용한 주요 공급국 지위 획득

- 한국 장비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중국산 장비에 대한 실망, 서방 국가 무기체계 도입의 자금력 한계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우방관계를 활용한 주요 공급국으로 확고한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 태국 정부도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완전한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정밀 무기체계는 대부분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기업으로부터 도입이 예상된다.
- 이러한 한-태 우방관계를 활용한 주요 공급국 지위 획득 전략은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 개최되는 상호 교류협력회의 등을 통한 한국과의 방산협력 증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현지화 정책을 통한 노후화 장비 분해수리(Overhaul), 성능개량사업 참여확대

- 태국은 쿠데타로 인한 금수 조치를 경험한 이래 성능이 미흡하더라도 국산화 및 국내생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시에도 공동생산, 기술이전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 기계·전자·재료 산업 후진성에 비춰볼 때 태국의 군수 부품시장 공략에 나서야 할 시점이며 육·해·공군의 기존 체계 정비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 특히, 체계·장비의 개별 노후도에 따른 분해수리(Overhaul), 성능개량 소요가 매우 높은 시장임에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품 조립이나 정비 분야는 한국 중소기업도 진출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의 현지화 정책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 세계 MRO 업종 현황⁴⁵⁾

회 사 수	4,743개 (중소기업 비율 80.7%)
고용인원	358,351명
시장 규모	667억 USD (2016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3.6% (2016~2026년)

■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라인 현지화는 소수 부품에 한정되고 부분적 조립에 그친다 할지라도 현지에서 생산 조립된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획득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시장 진출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표4-1]과 같이 세계 MRO 업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비율은 80.7%에 달하여 국내 방산중소벤처기업도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MRO 시장 중 구성품 또는 부품 단위의 중정비 관련 분야는 통상적인 수리와 함께 대체부품 및 재생부품을 공급까지 포함하며, 중정비 분야 다양한 부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태국 장비 노후화를 고려해볼 때 중정비 분야는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 이라고 판단된다.

[표 4-2] 구성품/부품 중정비 분류⁴⁶⁾

부품 하위분류	세부 내용
항공전장(avionics)	자동항법, 통신, 표시/기록 시스템, 내비게이션, IAM(항공기 실시간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정비
보조엔진(APU)	보조엔진 정비
연평균 성장률	3.6% (2016~2026년)
전기	발전기 드라이브, AC/DC 발전, 외부 전원 정비
엔진 액세서리	점화, 엔진 공기, 엔진 컨트롤, 엔진 표시 시스템, 엔진 배기가스 시스템(역추진 장치 제외), 엔진오일 시스템, 엔진가동 시스템 정비
프로펠러	프로펠러 조립, 컨트롤, 브레이크, 표시, 프로펠러 덕트 정비
비행조종	보조익, 방향키, 엘리베이터, 안정판, 플랩, 스포일러 등을 비롯한 비행조종 장치 정비
구조	출입구, 동체, 안정판, 창문, 날개 정비
연료 시스템	연료, 기내 연료공급 장치, 엔진 연료 및 컨트롤 시스템 정비
유압 시스템	유압 동력 시스템 정비
착륙장치	메인 기어, 출입구, 노즈 기어, 기어 하강 및 접개 장치 등 착륙기어 정비
바퀴 및 브레이크	바퀴 및 브레이크 정비

45) 자료 : '16년 ARSA보고서

46) 기술집약형 항공정비산업(MRO) 기술개발 사업기획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8) 구성품/부품 중정비 분류의 조정

2. ST 전략 (강점-위협 전략)

가. 수출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태국의 조달 환경을 고려해볼 때 동일 획득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 간 수출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획득 참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정보 공유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한 사업 참여는 가격 우위와 동시에 기업별로 산재하거나 정부차원에 서만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수집의 관점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나. 방위사업 정책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최근 태국은 방산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생산지구 구축을 위해 태국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함께 완화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국의 방산 자국화 정책과 맞물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함께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옵션이다.

3. WO 전략 (약점-기회 전략)

가. 전문조달 기구 운영 관리 노하우와 함께 수출 제안

- 한국은 국방부 산하 전문 조달기관 및 연구기관 조직 구조와 운영 관리가 태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조달 참여 또는 국방 협력 시 한국의 해당 관청(기품원, 방사청 등)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함께 제시한다면 심화되는 태국 조달경쟁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태국은 조달 관련 부서가 200개가 넘는 정도도 분권적인 조달 정책으로 인한 조달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부정부패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DTI)의 기능을 확대하여 방사청과 유사한 국방기술청(DTA)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 더욱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나. 지역 방산 수출전문가 육성 및 전문 에이전트 운영

- ▣ 정부차원의 G2G 협력을 제외한 모든 구매를 현지 중개역이 [국외구매-군납]하는 중개 방식이 보편화된 시장 여건임에 주목해야 하며, 또한 분권적 조달절차 속에서 군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계약 대상 기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극소수 전략물자 외에는 에이전트가 중개(혹은 선구매)가 필수적인 환경임을 고려해야 한다.
- ▣ 태국 정부의 부패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령부 단위의 분권적 획득 구매가 이어지고 있어 POC 지속 유지 및 인사 변동에 대한 현지 대응을 위한 태국 방산수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 에이전트 발굴하고 관리하는 지원책을 통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조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 또한, 분권적 조달 공고로 인해 태국 방산시장 소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소기업에 정보 제공자의 역할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태국 방산기업 및 개발기관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시장 진입

- ▣ 최근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 정부의 자국화 정책에 따라 절충교역을 활용한 기술 이전이나 공동생산을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태국 내 방산기업과의 기술 및 생산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런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
- ▣ 태국 방산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시장 진입은 중개업체(Agent) 의존적 수출 경향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4. WT 전략 (약점-위협 전략)

가. 주요 획득사업의 지연에 대비한 G2G 협력 강화

- ❏ 태국 군·방산업계는 한국산 군수체계·물자에 대한 인지도가 의외로 낮은 편으로 장기적인 한-태 양자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협력 강화 정책이 요구된다.

- 태국군을 직접 겨냥한 방산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한 정부적 차원의 군산 장비 홍보가 필요하다. 한국산 구매는 항상 태국 측의 접근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대 태국 수출은 지속적인 반면 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수입 상황까지 고려한 홍보 및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국민정서를 고려한 LOW KEY 접근

- ❏ 몇 차례 쿠데타를 경험한 태국 국민들은 고가 무기 구매 및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안 및 거래 시 물밑 접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태국 내 군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 ❏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와 접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접촉될지라도 에이전트의 신뢰도, 에이전트와의 접촉 비용 등의 문제로 에이전트를 활용한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형편으로 정부 기관의 차원에서 신뢰도 높은 방산 전문 에이전트 발굴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획득 소요 발굴,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5. 태국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가. 무기체계별 차별화 전략

- ❏ [주요 무기체계] 태국은 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정부간 거래를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체계별로 태국의 산업협력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항공 및 지상, 해상 부분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 산업협력에 대한 G2G 차원의 피력이 요구되며, 태국 내 방위산업 역량의 한계로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생산 및 정비시설 운영을 제안이 필요하다.

- ❖ **[무인체계]** 중소기업이 접근 가능한 유망한 시장 분야 중 하나는 무인체계분야이다. DTI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소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태국의 요구 사양에 적합한 기술을 식별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중점으로 마케팅 활동 및 제안이 필요하다.
 - 향후 10년 간 획득 동향을 살펴보면 무인체계 관련 지상관제시스템, 통신장비, 데이터링크 등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분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제안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인체계는 홍보나 제안단계에서 직접 성능시현이나 교육이 가능한 체계로 태국 기술 개발 기관이나 기업, 영관급 장교 초청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성능시현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기체계 및 기술을 홍보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다. 태국 방산전시회(Defence & Security) 참여를 통한 기업 홍보

- ❖ 방산 수출 분야는 민수 수출 분야와 달리 구매자(Buyer)가 구매국 정부나 군이 대부분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다 드물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구매국 획득 관련 인사와 대면 기회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획득 인사의 정보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아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 특히 태국은 대형 무기체계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획득 의사결정 권한이 각 군에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 정보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태국은 매 홀수년마다 국제 방산전시회(Defence & Security) 방산 수출 분야는 민수 수출 분야와 달리 구매자(Buyer)가 구매국 정부나 군이 대부분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해 성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해외 전시 관련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방산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여를 통한 무인체계는 홍보나 제안단계에서 직접 성능시현이나 교육이 가능한 체계로 태국 기술 개발을 뿐만 아니라 획득 인사의 정보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4 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4

제 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제 1 절 정책제안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정책제안

1. 정부 협력차원의 정책

가. 방산 담당관 파견

- 태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을 전담하여, 방산수출 업무를 지원하는 ‘방산담당관’ 파견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국방무관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방산담당관 역할의 한계 : 태국 주재 국방무관의 경우, 태국 및 ASEAN 군사외교, 한국전쟁 참전 보은 활동, 방글라데시 무관 겸임으로 업무가 과중한 현실이다.
- 따라서 태국 방산시장에 적합한 자문협력단의 파견이 필요하며 파견된 자문협력단은 태국 군 장비 가동률 상태를 진단하고 태국 측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과는 소요 정보의 사전 공유를 통해 선제적 시장진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20년 이상 운용한 노후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부서관, 방산기능인들로 구성한다면 이들의 재취업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업발전 세미나 등 교류협력 증대

- [무기체계별 산업협력 발전 방안 세미나]의 연례 개최 방안도 바람직하다
 - 한·태 양국의 전력증강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 국방기술품질원(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지원 기관에서 관장함으로써 주제 선정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기간 간 교류 협력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태국의 방산역량 중 부족한 지상무기체계나 항공·우주체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발전 세미나 개최는 태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좋은 분야일 것이다.
- [조직별, 기관별 교류협력 제고] 또한 태국 군이 운영하는 방산업체 혹은 수리업체, 수리창과 국내의 유사 기관, 조직을 자매결연 형식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면 태국 방산기업은 한국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한국 중소벤처기업은 태국 내 방산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태국 공급망 편입이 증대되는 실효적인 협력 방안일 것이다.

2. 한국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방안

가. MRO 시장 진출 지원

- 향후 태국의 방산시장에 대한 접근은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상 대기업 위주의 완성 장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방산 중소벤처기업 진출에 중점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으로는 현지 조립·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방안이 있다.

 - 체계 중심의 대(對)태국 수출은 지속되는 반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태국 양자협력 발전을 위해 체계 수출과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조립·정비사업으로 대(對)한국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임무 장비 중심의 기술개발과 MRO 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태국 군이 장기간 운용하면서 노후도가 높아진 체계에 장착된 주·야간 조준경, EOTS, 전자전 장비 등은 대부분 노후하여 성능 발휘가 안되거나 성능 자체가 진부화 되어 운용 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장비는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하였거나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 차원의 연구과제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초계함(PCC)이나 호위함(FF)에 탑재되는 전투체계의 성능개량 및 부품 교체 부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MRO 설비 및 교육·훈련을 포함한 제안이 필요하다.
- 현재 태국 정국이 안정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당시 추진 중이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획득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국방조달 환경 자체도 큰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MRO 사업이나 부품 조달 시장에 진입해있는 중소기업 점유 시장은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한국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중·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시장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 실제로 태국의 정국 불안정은 국방예산, 정책 수립, 우선순위 및 태국 경제 개발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이 같은 국내 여건 변화는 국방정책 및 대외군사협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나. 완제품 및 부품·소재 기업 2-TRACK 지원

- ❏ 태국은 기계·전기·전자·재료 등 기초산업의 경우에도 산업기반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태국의 방산분야 자국화 정책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들은 태국 부품시장 및 소형 품목 시장 직접 공략하는 전략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현지화 사업 참여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태국 체계·장비의 노후화를 고려할 때 부품 확보와 정비수리 소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특히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기업과 부품·소재 단위 제조기업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 지원 시 기업의 성격에 맞게 2 Track 접근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완제품 단위 제조기업 : 소요군 및 국방부 소요에 직접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태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진성 에이전트 발굴 지원을 통해 기업 매칭이 필요하다.
 - 부품·소재 단위 제조기업 : 태국 방산기업과의 기술 및 생산 제휴를 통한 체계 장비 공급 기업의 공급망에 편입하거나 태국 시장에 납품하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으로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편입할 수 있도록 공급망 파악 및 체계 기업 단위의 소요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 공동생산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력 범위 식별 방안 수립

- ❏ 태국 내 방산기업의 공동생산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은 증가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이전 범위나 협력 수준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주요 체계가 아닌 이상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E/L 수출 통제 범위 및 협력사의 핵심 기술 보유 능력, 기술 및 경제 파급력, 수출경쟁력 등의 기업 역량과 구매국 요구사항 및 방산역량 수준 등의 진출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 기술 협력 수준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

- 중소 방산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력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협력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술 이전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관련 연구 및 조달 기관을 활용하여 기술력, 수출경제성 평가 등의 지원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방산분야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장기적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체 판로를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의 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방조달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관행이 자리 잡은 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컨소시엄 형태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현지 경쟁력 있는 중개 업체(agent)를 활용하거나 현지 합작 투자를 유도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은 주요 부품과 원재료를 ①단순 판매 형태로 수출하거나, ②현지 합작업체와 조립,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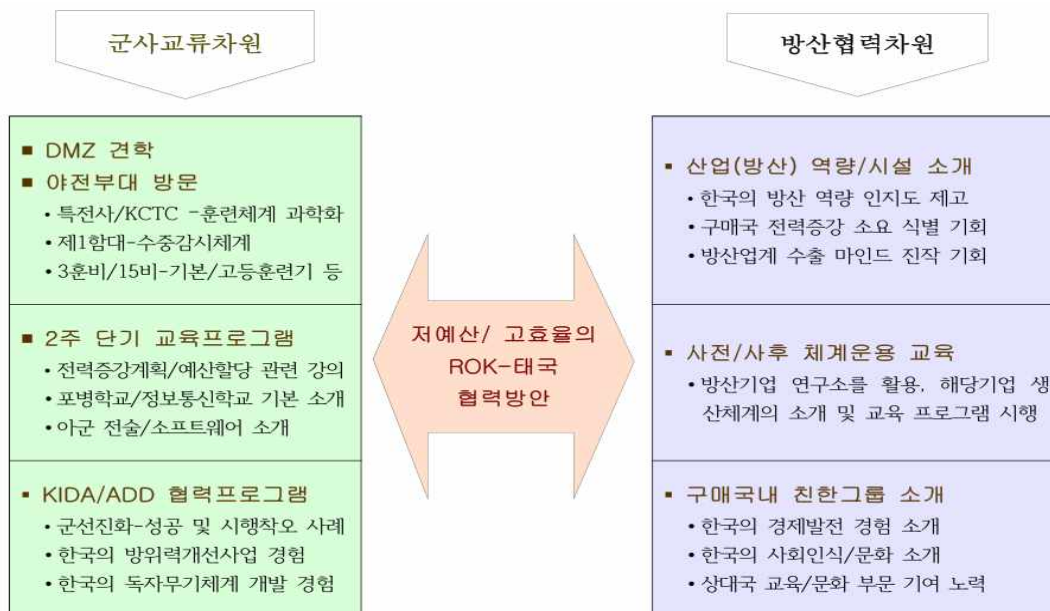
마. 중소기업 현지 생산라인 구축 지원

- 태국은 금수 조치를 경험한 이래 성능이 미흡하더라도 체계-부품-정비의 국산화를 우선하고 있어 군사장비 성능개량시장(체계·장비의 개별 노후도에 따른 분해수리(Overhaul), 성능개량 등)소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태국 현지 생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현지화를 위해 국가적 비용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술한 방산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고 펀드를 관리하여 자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한-태국 방산협력 프로그램 활용 방안

- 한국과 태국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이 매년 참가하는 태국에서의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Cobra Gold Combined Exercises)과 매년 한국/태국 교대로 개최되는 '한-태 군수 협력 공동위'를 통하여, 그리고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 개최되는 상호 교류협력회의 등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협력 증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 ❖ **[현지 로드쇼의 개최]** 다양한 국산 제품 소개를 위한 현지 로드쇼를 적어도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함으로써 태국군 지휘관들과 방산 기업인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 및 군사 장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빈번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방산 로드쇼는 개별적으로 현지 시장개척에 나서기엔 역부족인 한국의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 **[태국 획득 인사들의 방한 프로그램]** 국방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관리들과, 지·해·공군은 물론 특수군 지휘관들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으로 초청, 관심 장비의 생산 라인들을 보여주고 운용 시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현재 태국의 국방부 및 각군은 새로운 방산진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력 소요기획 및 국방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의 방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태국 시장 진출 확대를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 ①양자 방산협력 계획 소개, ②한국 국방R&D/방산 발전사 교육, ③상대국 관심 체계 분야 성능소개, ④상호 교류가능 분야 토의, ⑤ DMZ 안보현장과 방산업체 현장 견학 등



[그림 4-1] 한-태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방안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 ❖ 태국은 정국의 변화 및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국경의 위협, 남부 분리주의자들의 분란 위협 등 대·내외 안보 위협에 따라 국방·안보 경쟁력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2017년 태국 4.0정책을 바탕으로 안보·번영·지속가능성을 비전으로 2036년까지 20년 국가전략(20-years National Strategy)을 수립하여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소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태국 국방조달은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OPM)」을 준용하며 투명한 경쟁과 비용적합성에 따라 국방조달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권적인 조달 담당기관 및 획득 예산 관련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여 예산 확보 여부, 조달 기간, 사업 우선순위 등 정보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
 - 중장기 획득계획에 따른 조달(구매) 및 연구개발 의사결정 전문 기관이 없어 대규모 계약은 국방부장관 중심의 국방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부분의 계약은 군단위 조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태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코로나19여파로 획득 예산 축소·변동 및 상대국 신용 원조를 원하지 않는 정책 등은 획득계획의 잦은 변동을 야기하여 기업진출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주요 수입 무기체계 및 향후 획득 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 진출 가능 분야로는 통신체계, 지휘통제체계, EO/IR,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등이 유망하다 판단되며, 완제품 및 부품·구성품 단위의 품목 성격에 따라 다각적인 시장접근이 요구된다.
- ❖ 태국 방산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장진입 전략으로는 공급국 지위 획득, 노후화 장비 MRO 참여확대, 방산 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이 있다.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진출전략 제언

- ① 태국 군 운용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향후 MRO 소요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구성품 또는 부품 단위의 중정비 분야는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유리한 시장이 될 것임
- ② 여전히 현지 중개업체를 통한 접근 또는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는 조달 기조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 필요
- ③ 의사결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획득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체계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중점으로 마케팅 활동 및 제안 필요

이 면은 공백임

이 면은 공백임

부 록

1. 향후 획득 계획

2. 주요 현지 방산기업

3. 군종별 노후화 장비

부록 1. 향후 획득 계획⁴⁷⁾

1. 통신체계 분야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AIS Base Station	Ground/Fixed	Ground	0.33
Alpha Jet datalink	Fixed-Wing	Strike/Attack Acft	3.80
Amphibious APC VHF Transceiver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92
Amphibious APV Intercom System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39
APC communications upgrade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57.02
APC Intercom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6.68
APC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0.02
Army Attack Helicopter Datalink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2.39
Army Attack Helicopter HF Radio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20
Army Attack Helicopter IFF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3.06
Army Attack Helicopter Interco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74
Army Attack Helicopter V/UHF Transceivers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2.13
Basic Trainer ICS	Fixed-Wing	Other Aircraft	0.71
Basic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1.40
Basic Trainer V/UHF Transceivers	Fixed-Wing	Other Aircraft	1.86
Control Station Acoustic Datalink	Ship	Multiple	0.11
Control Station Datalink	Ship	Multiple	0.07
Do228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2.16
Do228 H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70
Do228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1.78
Do228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47
Do228 V/UHF	Fixed-Wing	SpecMission Acft	1.45
Fighter Datalink	Fixed-Wing	Strike/Attack Acft	3.58

47) Market Forecast 2020-2029, Jane's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Fighter HF Radio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30
Fighter IFF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53
Fighter V/UHF Radio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04
Future Frigate CESM	Ship	Frigate	6.47
Future Frigate datalink	Ship	Frigate	2.61
Future Frigate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	Ship	Frigate	6.05
Future Frigate IFF	Ship	Frigate	1.98
Future Frigate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	Ship	Frigate	8.46
Future Frigate SATCOM	Ship	Frigate	5.66
HLS Mini UAS GCS Datalink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17
HLS Mini UAS GCS VHF/UHF Radio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37
HLS Mini UAV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4
HLS Mini UAV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20
Jet Trainer HF Transceivers	Fixed-Wing	Other Aircraft	1.37
Jet Trainer ICS	Fixed-Wing	Other Aircraft	0.85
Jet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1.83
Jet Trainer V/UHF Transceivers	Fixed-Wing	Other Aircraft	2.44
Light Helicopter ICS	Helicopter	Utility Aircraft	0.95
Light Helicopter IFF	Helicopter	Utility Aircraft	2.04
Light Helicopter Radios	Helicopter	Utility Aircraft	2.89
LPD Endurance Datalink	Ship	Amphibious	0.44
LPD Endurance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	Ship	Amphibious	1.03
LPD Endurance IFF	Ship	Amphibious	0.95
LPD Endurance Integrated Communications System	Ship	Amphibious	2.21
LPD Endurance SATCOM	Ship	Amphibious	0.74
M21 Ex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Patrol Craft	1.55
MBT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6.21
Medium Transport Aircraft 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14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Medium Transport Aircraf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19
Medium Transport Aircraft Inter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09
Medium Transport Aircraft V/U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25
Medium Transport Helicopter HF	Helicopter	Utility Aircraft	2.13
Medium Transport Helicopter ICS	Helicopter	Utility Aircraft	1.03
Medium Transport Helicopter IFF	Helicopter	Utility Aircraft	2.19
Medium Transport Helicopter V/UHF	Helicopter	Utility Aircraft	2.92
MPA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70
MPA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0
MPA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4
MPA V/UHF/H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85
Tactical Transport datalink	Fixed-Wing	Transport Acft	3.26
Tactical Transport HF	Fixed-Wing	Transport Acft	2.09
Tactical Transport ICS	Fixed-Wing	Transport Acft	0.65
Tactical Transpor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1.40
Tactical Transport SATCOM	Fixed-Wing	Transport Acft	2.62
Tactical Transport V/UHF	Fixed-Wing	Transport Acft	3.72
Tactical UAV BLOS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3
Tactical UAV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3
Tactical UAV GCS BLOS Datalink	Grd/Transportable	Ground	0.70
Tactical UAV GCS Datalink	Grd/Transportable	Ground	0.23
Twin engine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0.58
Twin engine Trainer Intercom	Fixed-Wing	Other Aircraft	0.27
Twin engine Trainer V/UHF radio	Fixed-Wing	Other Aircraft	0.78
UUV Acoustic Datalink	Submarine	Other Ship	0.11
UUV Datalink	Submarine	Other Ship	0.07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VIP Transport Aircraft Datalink	Fixed-Wing	Transport Acft	0.47
VIP Transport Aircraft HF radio transceivers	Fixed-Wing	Transport Acft	0.30
VIP Transport Aircraft ICS	Fixed-Wing	Transport Acft	0.09
VIP Transport Aircraf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39
VIP Transport Aircraft SAT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38
VIP Transport Aircraft V/UHF radio transceivers	Fixed-Wing	Transport Acft	0.54
VN1 IC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00
VN1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3.00
VTMIS HF	Ground/Fixed	Ground	0.38
VTMIS Marine V/UHF	Ground/Fixed	Ground	2.40
예상획득계획			
Ab Initio Trainer HF radio	Fixed-Wing	Other Aircraft	2.05
Ab Initio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2.73
Ab Initio Trainer Intercom	Fixed-Wing	Other Aircraft	1.28
Ab Initio Trainer V/UHF radio	Fixed-Wing	Other Aircraft	3.64
AORL datalink	Ship	Other Ship	0.27
AORL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hip	Other Ship	0.14
AORL IFF	Ship	Other Ship	0.10
AORL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	Ship	Other Ship	0.20
AORL SATCOM	Ship	Other Ship	0.27
AX Ex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Other Ship	0.24
AX IFF	Ship	Other Ship	0.08
AX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Ship	Other Ship	0.24
Basic Trainer ICS	Fixed-Wing	Other Aircraft	0.18
Basic Trainer IFF	Fixed-Wing	Other Aircraft	0.38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Basic Trainer V/UHF Transceivers	Fixed-Wing	Other Aircraft	0.51
CNR	Multiple	MissionElec Oth.	158.91
F/16A/B Block15 MLU(II) CIT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40
Future HLS Net Base Stations	Multiple	Multiple	28.88
Future HLS Net terminals	Multiple	Multiple	8.25
Ground vehicles VHF Receiver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6.29
Information Systems Upgrades	Ground/Fixed	Ground	65.80
LCU Ex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hip	Other Ship	0.16
LCU IFF	Ship	Other Ship	0.35
LCU Internal Communications Systems	Ship	Other Ship	0.23
MALE UAS GCS LOS Datalink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31
MALE UAS GCS SATCOM Datalink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2.28
MALE UAS GCS VHF Transceiver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72
MALE UAV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4
MALE UAV LOS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63
MALE UAV SATCOM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4.57
MALE/HALE UAS GCS LOS Datalink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26
MALE/HALE UAS GCS SATCOM Datalink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1.90
MALE/HALE UAS GCS VHF Transceiver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0.60
MALE/HAL UAV IF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27
MALE/HALE UAV LOS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49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MALE/HALE UAV SATCOM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3.56
Maritime Helicopter Datalink	Helicopter	SpecMission Acft	1.45
Maritime Helicopter HF Radios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47
Maritime Helicopter IFF System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19
Maritime Helicopter Intercom (ICS)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29
Maritime Helicopter V/UHF Radios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80
Mini UAS GCS Datalink	Manportable	Manportable	0.06
Mini UAS GCS VHF/UHF Radio	Manportable	Manportable	0.87
Mini UAV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8
Mini-Flail UGV Ground Control Station (GCS) Datalink	Manportable	Manportable	0.01
Multi service Strategic communication network	Ground/Fixed	Ground	70.03
Navy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22
Navy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57
Navy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Inter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14
Navy Light Utility transport aircraft V/U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39
PRR	Manportable	Manportable	10.73
Saab 340 CI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3
Saab 340 Datalink	Fixed-Wing	SpecMission Acft	0.40
Saab 340 H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23
Saab 340 Interco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08
Saab 340 V/UHF	Fixed-Wing	SpecMission Acft	0.34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Self Propelled Artillery IC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17
Self Propelled Artillery VHF radio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86
Self Propelled Mortar CNR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48
Self Propelled Mortar IC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90
Tactical Transport 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24
Tactical Transport IFF	Fixed-Wing	Transport Acft	0.60
Tactical Transport Intercom	Fixed-Wing	Transport Acft	0.15
Tactical Transport V/UHF Radios	Fixed-Wing	Transport Acft	0.42
VTOL UAV GCS LOS Datalink	Ship	Other Ship	0.23
VTOL UAV GCS SATCOM Datalink	Ship	Other Ship	1.67
VTOL UAV LOS Datalink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47
VTOL UAV SATCOM Datalink	Helicopter	SpecMission Acft	3.34
WBNR	Multiple	MissionElec Oth.	30.56

2. 지휘통제체계 분야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ATC C2 production	Ground/Fixed	Ground	20.79
Combat UG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31
Do228 TDMS Upgrades	Fixed-Wing	SpecMission Acft	18.20
FFGHM Future Frigate CMS	Ship	Frigate	27.04
HLS Mini UA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04
LPD 793 CMS	Ship	Amphibious	17.66
Maritime Patrol Aircraft TMS	Fixed-Wing	SpecMission Acft	17.17
MBT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6.05
MPS	Grd/Transportable	Ground	2.13
PSOH Krabi CMS	Ship	Patrol Craft	31.59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RTAF C3I System Upgrades	Ground/Fixed	Ground	35.60
Tactical UA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03
U-1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06
UUV Control Station	Ship	Other Ship	1.65
예상획득계획			
Artillery C2	Artillery	Artillery	12.03
HLS CBRN C2	Grd/Transportable	Ground	2.46
JF Logistics C2	Ground/Fixed	MissionElec Oth.	25.86
Joint Air Defense Digital Information Network (JADDIN) upgrade	Ground/Fixed	Ground	26.21
LRSAM C2	Grd/Transportable	Ground	8.51
MALE UAS GCS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19.49
MALE/HALE UAS GCS	Grd/Transportable	MissionElec Oth.	26.79
Maritime Helicopter TDMS	Helicopter	SpecMission Acft	12.04
Mini UAS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07
Mini-Flail UGV GCS	Manportable	Manportable	0.17
MoD Datacenters	Ground/Fixed	Ground	64.72
MRSAM C2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1.45
NG Strategic C2	Ground/Fixed	Ground	29.88
Saab 340 AEW Erieye C2	Fixed-Wing	SpecMission Acft	6.24
Soldier Modernization C2	Manportable	Manportable	25.68
Tactical BM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4.84
VTMS C2 Upgrades	Ground/Fixed	Ground	14.06
VTOL UAS GCS	Ship	Other Ship	6.48

3. EO/IR(전자광학/적외선) 시스템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Commander'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42.74
Day/Night Direct Fire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9.28
Driver's Night Vision System (DNV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6.98
EO/IR Fire Control System	Ship	Patrol Craft	2.61
Gunner'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50.27
Laser Warning Syste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64
Missile Warning Syste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64
Naval Observation Turret (light)	Ship	Patrol Craft	0.89
Naval Targeting System (heavy)	Ship	Patrol Craft	2.79
Observation Turret	Fixed-Wing	SpecMission Acft	4.50
Observation Turret	Helicopter	SpecMission Acft	1.96
Observation Turret (ligh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11
Optronic Mast	Submarine	Attack Sub	7.60
Pilot's Night Vision Syste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6.55
ROWS S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3.44
ROWS Sight (Light)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5.15
Situational Awareness System (SA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1.74
Targeting Turret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13.10
UUV EO Payload	Submarine	USV	0.04
예상획득계획			
Aviator's Night Vision Goggles	Manportable	Manportable	5.67
CIWS EO/IR FCS	Ship	Carrier	0.32
CIWS EO/IR FCS	Ship	Other Ship	0.21
Directed Infrared Countermeasures System	Fixed-Wing	Transport Acft	15.18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Driver's Night Vision System (DNV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0.92
EO/IR Fixed Surveillance System	Ground/Fixed	NA	7.31
EO/IR Mini-Flail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0.29
EO/IR Surveillance System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20.57
Heavy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4.35
I2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15.93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3.37
Laser Rangefinder Module	Manportable	Manportable	2.21
Litening III - Upgrade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91
Manportable Surveillance System	Manportable	Manportable	1.25
Missile Warning System	Fixed-Wing	SpecMission Acft	0.70
Missile Warning System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07
Missile Warning System	Fixed-Wing	Transport Acft	0.11
Missile Warning System	Helicopter	SpecMission Acft	1.54
Missile Warning System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0.74
Missile Warning System	Helicopter	Transport Acft	1.09
Missile Warning System	Helicopter	Utility Aircraft	0.61
MWS-LWS combined sensor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99
MWS-LWS combined sensor	Helicopter	SpecMission Acft	1.73
MWS-LWS combined sensor	Helicopter	Utility Aircraft	0.53
Naval Observation Turret	Ship	Patrol Craft	1.86
Naval Targeting System (heavy)	Ship	Other Ship	1.73
Night Vision Goggle	Manportable	Manportable	15.43
Observation Turret	Fixed-Wing	SpecMission Acft	2.49
Observation Turret	Helicopter	SpecMission Acft	6.61
Observation Turret	Helicopter	Strike/Attack Acft	2.18
Observation Turret	Helicopter	Transport Acft	1.58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Observation Turret (ligh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50
Portable Designator/Rangefinder	Manportable	Manportable	5.97
Reconnaissance Pod	Fixed-Wing	Strike/Attack Acft	11.26
Situational Awareness System (SAS)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18.63
Target Locator (long-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9.82
Target Locator (medium-range)	Manportable	Manportable	4.47
Target Pointer/Illuminator	Manportable	Manportable	1.60
Targeting Pod	Fixed-Wing	Strike/Attack Acft	2.59
Targeting Turret	Fixed-Wing	SpecMission Acft	7.98
		Strike/Attack Acft	6.16
Thermal Imaging Camera	Manportable	Manportable	0.61
Thermal Weapon Sight	Manportable	Manportable	6.67

4. 시뮬레이션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예상획득계획			
Thailand Maritime Helicopter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Helicopter	SpecMission Acft	4.84
Thailand Maritime Helicopter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Support	Helicopter	SpecMission Acft	0.00
Thailand MPA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Fixed-Wing	SpecMission Acft	3.32
Thailand MPA Opportunity – Ground Based Training System (GBTS) Support	Fixed-Wing	SpecMission Acft	0.47

5. 무인체계

장비명		플랫폼	플랫폼 (상세)	사업 가치 (Mil\$)
확정획득계획				
Unmanned Air Veh	RTN U-1	Fixed-Wing	SpecMission Acft	1.27
	HLS Mini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0.61
	Tactical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0.95
Unmanned Gnd Veh	SO Medium Combat UGV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3.33
Unmanned Sea Veh	UUV	Submarine	Other Ship	10.37
예상획득계획				
Unmanned Air Veh	Aerial Target Service	Fixed-Wing	UAV	5.00
	MALE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53.72
	MALE/HALE	Fixed-Wing	SpecMission Acft	52.94
	Mini UAV	Fixed-Wing	SpecMission Acft	1.18
	VTOL UAV	Helicopter	SpecMission Acft	9.27
Unmanned Gnd Veh	Mini-Flail	Ground Vehicle	Combat Gnd Vehicle	3.85

부록 2. 주요 현지 방산기업⁴⁸⁾

1. 항공 부문

G Force Composites	
Summary	Develops and produces fixed-wing unmanned aerial systems.
Ownership	Private
Web	www.g-force-composites.com

Kasama Helicopters	
Summary	Develops rotary-wing unmanned aerial systems.
Ownership	Private
Web	www.kasama.com

Thai Aviation Industries	
Summary	In collaboration with the Royal Thai Air Force, Thai Aviation Industries provides services including fixed-wing and rotary aircraft maintenance and upgrade, engine and avionics services.
Ownership	State-owned
Web	https://www.rvconnex.com/

2. 지상 부문

Weapons Production Centre	
Summary	Develops and produces a range of equipment for the Royal Thai Army, including artillery, military vehicles, ammunition and explosives.
Ownership	State-owned
Web	http://wpc.mod.go.th/Home.aspx

48) Market Report - Thailand, Jane's 중 Major Defence Companies

Amornmas	
Summary	Produces a range of target systems for military training activities.
Ownership	Private
Web	www.amornmas.com

Chaiseri Metal & Rubber	
Summary	Produces military vehicles and related spare parts and accessories for primarily the Thai Armed Forces.
Ownership	Private
Web	www.chaiseri-defense.com/contact.html

Military Explosives Factory	
Summary	Produces a wide range of explosives and ammunition for Thai Armed Forces.
Ownership	State-owned
Web	N/A

Royal Defence	
Summary	Produces 9 mm/11.5 mm ammunition for Thai Armed Forces
Ownership	Private
Web	www.royaldefence.com/

Siam Teltech	
Summary	Siam Teltech acts mainly as a partner to international primes (including Raytheon, Rockwell Collins, Moog and L-3 Communications in the past) in sales to the Thai Armed Forces
Ownership	Private
Web	www.siamteltech.com

Thai Rung	
Summary	Produces range of 4x4 military vehicles.
Ownership	Private
Web	www.thairung.co.th

Viriyakit	
Summary	Develops and manufactures weapon sight systems.
Ownership	Private
Web	www.viriyakit.com

3. 해상 부문

Asian Marine Services	
Summary	Naval shipbuilding, repair and conversion.
Ownership	Private
Web	www.asimar.com

Bangkok Dock	
Summary	Naval shipbuilding, repair and overhaul.
Ownership	State-owned
Web	www.bangkokdock.co.th

Marsun	
Summary	Naval shipbuilding, repair and conversion.
Ownership	Private
Web	www.marsun.th.com

Unithai	
Summary	Naval shipbuilding, repair and overhaul as well as range of offshore services.
Ownership	Private
Web	www.unithai.com

4. C4ISR

Aerotek	
Summary	Aerotek designs and manufactures microwave and radio-frequency systems for telecommunications.
Ownership	Private
Web	www.aerotek.co.th

Astra Technology	
Summary	Provides services related to training, consulting, assessment and development services to Thai Armed Forces.
Ownership	Private
Web	www.astratech.co.th

Avia Satcom	
Summary	Designs, develops and builds avionics, telecommunications and surveillance systems.
Ownership	Private, Partly owned by Saab of Sweden
Web	www.groupavia.com

Bangna Phaisan	
Summary	A producer of security and surveillance products, including night vision equipment; digital surveillance cameras; antenna systems; and radio frequency products.
Ownership	Private
Web	www.phaisan.com

Digital Research and Consulting	
Summary	Produces telecommunications devices, specialising in radio-frequency.
Ownership	Private
Web	www.drc.co.th

Infowave	
Summary	Provides training and simulation, consulting, assessment and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to military.
Ownership	Private
Web	www.waveman.com

Loxley	
Summary	Produces through its subsidiaries defence electronics equipment.
Ownership	Private
Web	www.loxley.co.th/ac.html

Jasmine International	
Summary	Company designs and produces telecommunications systems.
Ownership	Private
Web	www.jasmine.com

Yip In Tsoi Group	
Summary	Designs and develops radio and navigation systems for military purposes.
Ownership	Private
Web	www.yipjacks.com

부록 3. 군종별 노후화 장비⁴⁹⁾

체계구분	체계명	역할	최초 납품년도	운용 수량
공군				
항공기	Alpha Jet	Combat	2000	16
	AU-23A	Combat	1972	11
	Bell 412	Logistics	1982	2
	Bell 412EP	Logistics	1998	6
	Bell 412HP	Logistics	1991	1
	Bell 412SP	Logistics	1990	2
	BT-67	General aviation	1997	8
	C-130H	Logistics	1980	6
	C-130H-30	Logistics	1983	6
	CT/4A	Trainer - basic	1974	13
	CT/4B	Trainer - basic	1992	6
	CT/4E	Trainer - basic	1999	24
	F-16A	Combat	1988	38
	F-16B	Combat	1988	14
	F-5E	Combat	1978	0
	F-5F	Trainer - operational	1978	1
	L-39 ZA	Trainer - advanced	1993	17
	PC-9	Trainer - basic	1991	22
	T-41D	Trainer - basic	1968	7
	UH-1H	Logistics	1968	18
	748 Series 2	Logistics	1965	3
	Learjet 35A	Logistics	1988	1
	A310-300	General aviation	1991	1
육군				
기갑차량	Condor APC	Armoured personnel carrier	1995	18
	M113	Armoured personnel carrier	-	430
	M41	Light tank	1962	42
	M48A5	Main battle tank	-	105
	M60A1	Main battle tank	1991	50
	M60A3	Main battle tank	1996	125
	Scorpion	Light tank	-	104
	Stingray	Light tank	1989	66
	YW531H	Armoured personnel carrier	1987	450
항공기	185 Skywagon	General aviation(고정익)	1972	10
	1900C Cargo Conversion	General aviation(고정익)	1991	2
	AH-1F	Combat(회전익)	1990	7

체계구분	체계명	역할	최초 납품년도	운용 수량
	C212-300	Logistics(고정익)	1996	2
	Cessna 182T	General aviation(고정익)	-	3
	CH-47D	Logistics(회전익)	1991	6
	Jetstream 41	Logistics(고정익)	1995	2
	King Air B200	General aviation(고정익)	-	2
	S-70A-43	Combat (회전익)	-	6
	Shorts 330	Logistics(고정익)	1984	2
	T-41B	Trainer - basic(고정익)	1968	0
	TH-300C	Trainer - basic(회전익)	1986	40
	UH-1H	Logistics(회전익)	1990	12
화포	12.7 mm M55	Light anti-aircraft gun(quad)	-	18
	LG1 Mk II	Light gun	1996	39
	M101	Howitzer	-	0
	M1064A3	Self-propelled mortar	1995	12
	M106A1	Self-propelled mortar	-	0
	M109A5	Self-propelled howitzer	1993	20
	M114	Howitzer	-	48
	M163	Anti-aircraft gun	-	24
	M167A1	Anti-aircraft gun	-	24
	M198	Howitzer	-	60
	M-71	Howitzer	-	32
	Type 59	Field gun	-	24
	Type 59-1	Field gun	-	15
해군				
함정	Chakri Naruebet	Aircraft carrier	1997	1
	Knox	Frigate	1970	2
	Naresuan	Frigate	1994	4
	Chao Phraya	Frigate	1991	4
	Yarrow	Frigate	1973	1
	Tapi (PF 103)	Corvette	1971	2
	Rattanakosin	Corvette	1986	2
	Khamronsin	Corvette	1992	3
	Ratcharit	Fast attack craft - missile	1979	3
	Prabparapak	Fast attack craft - missile	1976	3
	Chon Buri	Fast attack craft - gun	1983	3
	Hua Hin	Patrol craft	2000	3

체계구분	체계명	역할	최초 납품년도	운용 수량
	Sattahip(PSSM Mk5)	Patrol craft - large	1983	6
	T 81	Patrol craft - coastal	1999	3
	PGM 71	Patrol craft - coastal	1966	4
	T 91	Patrol craft - coastal	1965	9
	T 213	Patrol craft - coastal	1980	13
	LAT YA(Gaeta)	Minehunter	1999	2
	Bang Rachan	Minehunter	1987	2
	Bluebird	Minesweeper - coastal	1965	2
	MCM Support Ship	Support ship	1980	1
	Normed	Landing ship - tank	1987	2
	Landing Craft	Landing Craft	1965	40
	Thong Kaeo	Landing craft - utility	1982	6
	Griffon 1000 TD	Hovercraft	1990	3
	Hysucat 18	Hydrofoil	1986	N/A
항공기	AB212	Maritime-anti-submarine(회전익)	1977	4
	Bell 214ST	Logistics(회전익)	1987	4
	Do 228-212	Maritime patrol/anti-submarine(고정익)	1991	7
	F27 Series 200	Logistics(고정익)	1984	3
	F27 Series 400M	Logistics(고정익)	1987	2
	S-70B-7	Maritime-anti-submarine(회전익)	1997	6
	S-76B	Maritime-anti-submarine(회전익)	1996	5
	T-337G	Maritime patrol(고정익)	1981	2
	T-337H-SP	Maritime patrol(고정익)	1990	7
	P-3T Orion	Maritime patrol/anti-submarine (고정익)	1995	2
	N22 Nomad	Maritime patrol/anti-submarine (고정익)	1984	5

49) Jane's 「Market Report」 및 Inventories Data 재조합하여 2000년 이전 취득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함.

참고문헌(국외)

- (1)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OPM
- (2) Acquisition Management, GlobalSecurity.org
- (3) The Thai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5, GlobalData(2020.3)
- (4) Budgeting in Thailand by Jon R Bloendal and Sang-In Kim, OECD Journal on Budgeting (2006)
- (5) Thai government survives key test with US\$106bil budget vote, The Star(2020.7.4.)
- (6) Cabinet shifts budgets into central fund, Bangkok Post(2020.4.22.)
- (7) Army defers carrier deal, Bangkok Post(2020. 4. 22.)
- (8) Covid-19: Thai navy cuts spending, postpones submarine procurement, Jane's(2020. 4. 20.)
- (9) Market Report – Thailand, Jane's
- (10) Defence Budget Overview – Thailand, Jane's
- (11)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www.sipri.org)
- (12)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Trade registers (www.sipri.org)
- (13) Meeting on Thailand's 20-Year National Strategy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2019.9.27.)
- (14) Thailand plans new defence industry estate, Jane's News(2020.6.25.)
- (15) Schiebel to supply Camcopterr S-100 UAS to Royal Thai Navy, Naval Technology (2019.11.05.)
- (16) Thailand Inventories Data, Jane's
- (17) COVID19: Thailand proposes 2021 defence budget reduction, Jane's Defence Weekly (2020.7.2.)

참고문헌(국내)

- (1) 2019 태국 개황, 외교부(2019.11.)
- (2) '해외시장 뉴스 국가·지역 정보-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3) 주요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공급망 진입전략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및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0.5.4.)
- (4) 최근 태국 경제 현황 및 한국·태국 경제협력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9.8.28.)
- (5) 2019 세계의 군사력 - 세계의 군사력과 국방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 정보사령부
- (6) 2019 국별 진출전략 - 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7) 무인이동체산업의 국내 역량분석 및 정책방향 - 드론 및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6-268(2016.5.)
- (8) 무인기, KISTEP 기술동향 브리프 2018-19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9)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2018)
- (10) 무인기산업 국내외 현황조사 및 수요기반 발전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2016.12.)
- (11) 무인기 ICT 기술 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2)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12.
- (13) 해외 절충교역 제도 현황, 방위사업청(2015.2.)
- (14) 기술집약형 항공정비산업(MRO) 기술개발 사업기획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8)

이 면은 공백임

태국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Thailand Defense Industry Market

작 성			
성 명	분 야	전화번호	E-mail
여서윤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96	syyeo@dtaq.re.kr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 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수출지원1팀장	선임연구원 원준호

**태국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